

월간 가든인 8월호

August 2016

Gardenin

특집
기사

가을맞이 정원식물



Gardenin Maintenance

가든엔씨앗/발아, 패랭이
생활 속의 도시농업/8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s

관목시대/양국수나무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금평의다리

Gardenin Culture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쏟아지는 소낙기처럼
힐링원에/공기식물을 이용한 공간 꾸미기

Gardenin Design

COLOR IN THE GARDEN/Brown Flowers
정원으로의 여행/정원안의 구조물

무궁화 핑크시폰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BOOK / 나만의 베란다 텃밭이야기, Flowers COME to LIFE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수직정원

Gardenin Maintenance

- 6 정원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 10 가든엔씨앗 - 발아, 패랭이
- 14 생활 속의 도시농업 - 8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

- 18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시원한 여름을 연출하는 그린 인테리어
- 22 정원 속 보이네 - 글라디올러스, 글리세리아, 천일홍
- 26 Special Issue - 가을맞이 정원식물
- 32 관목시대 - 양국수나무
- 34 이명호의 야생화 - 동자꽃
- 38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출사철, 연/수련, 돌꽃잔디, 수크령, 섬백리향
- 42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금평의다리
- 46 서봄, 정원식물 나들이 - 예키나

Gardenin Culture

- 48 세계의 정원박람회 - 프랑스 쇼몽 국제정원
- 50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 53 정원속의 식용 꽃 - 모나다
- 54 허브&아로마테라피 - 원데이 허브힐링캠프
- 56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정원의 재발견
- 60 힐링원예 - 공기식물을 이용한 공간 꾸미기

Gardenin Design

- 63 칼럼 - 계절별 주요 품목 가든연출
- 68 COLOR IN THE GARDEN - Brown Flowers
- 72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아이를 위한 인형의 집 정원
- 74 정원으로의 여행 - 정원안의 구조물

Gardenin Information

- 77 정원식물 따라잡기 - 관목
- 80 가든인 생생정보
- 81 GARDEN & BOOK - 나만의 베란다 텃밭이야기, 플라워 컴 투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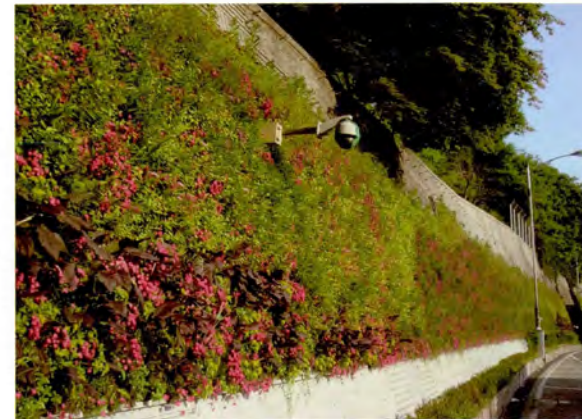


이 달의 포커스

수직정원

도시의 녹지면적을 넓혀주는 일환으로 단순 녹화의 기능이 우선시 되었던 벽면녹화가 이제는 수직정원으로서 점점 더 도시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 방식은 포켓형, 패넬형 등 다양하고 회사별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반체와 자동 관수 유지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매년 달라지고 있다.

수직정원의 과제는 다양한 타입의 디자인이 가능하고 지역에 맞는 식물의 선정과 생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관수읍선을 최소화하고 녹색도시로서의 기능성과 건물의 홍보효과 향상 등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정원의
아름다움과
맛...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관상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까? 아름다움이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하고 또 다른 작품을 보고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다. 아름다움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하려 든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말한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뜰판에서 습지에서 숲에서 우리는 관찰하고 느끼고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모여서 우리는 정원을 만든다. 다양한 뜰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정원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습지에서 다양

한 물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낮은 산, 높은 산 등 다양한 산에서 숲의 정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이런 저런 정원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원의 다양성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나타나고 모범답안이 아닌 답이 많은 정원으로 그래서 그런 정원을 만든 사람들이 만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세상을 잠시나마 꿈꾸어 본다. 참으로 멋진 일이다.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그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렇게 정원을 만들어 나간다면 정원의 크기와 식물의 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와 1년 예산이 얼마인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단 한평이라도 하나의 식물을 한사람이 가꾸어도 멋지고 우아하고 고상한 일 일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옛 어른들께서 이미 했었다. 다만 잠시 끊어졌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원은 정원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정원에서 꽃이 있고 그 꽃에는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도 벌과 나비처럼 꽃을 찾아 정원으로 숲으로 찾아간다. 벌과 나비가 꿀을 찾아서 간다면 요즘 사람들은 치유 받고 쉬기 위해서...

생각해보자. 우리의 주변 환경을 아니,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까지 심 없이 달려 왔을 테니 잠시 쉬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

텃밭정원

텃밭정원에서 섞어짓기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본다. 섞어짓기는 채소와 풀(허브)을 심는 경우도 있지만 채소와 채소 그리고 채소, 허브 그리고 나무를 같이 심는 경우도 있다.

텃밭정원 섞어짓기 효과



1. 메주콩과 가을 당근

당근의 해충인 호랑나비를 막아주고 콩의 해충인 노린재를 막아준다.

2. 가지와 파슬리

가지는 파슬리의 해충인 호랑나비를 막아주고 그늘에서 잘 자라는 파슬리의 품질을 좋게 하고 가지는 햇빛에서 잘 자라 품질을 좋게 함.



3. 콩과 고구마

콩은 공중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자라는 높이를 생각해 공간을 이용한다. 이때 콩은 모종을 내서 고구마 보다 먼저 심어야 고구마 순에 차이 지 않는다.



5. 대파와 시금치

채소의 자람에 있어서는 시금치는 그늘을 좋아하고 대파는 햇빛을 좋아한다. 대파는 시금치의 해충을 막고, 시금치는 대파의 해충을 막아준다. 생시금치의 발암물질인 초산성분을 낮게 하는 역할을 한다.



6. 마늘과 고추

마늘은 고추의 진딧물을 막아준다. 이때 마늘은 작년 가을에 심고 남은 것을 봄에 다시 뿌린 것이다.



4. 수박과 옥수수

양분경합을 피하고 공간을 두 배로 활용하고 수박은 피복식물로 땅의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수박이 잘 자라면 역초의 효과도 있다.



7. 대파와 오이

대파는 오이의 냉쿨썩병을 막아주고 해충을 막아준다. 또한 서로의 생육을 촉진시킨다.



8. 양배추와 상추

상추는 양배추의 도둑나방, 배추흰나비, 배추좀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양배추가 자라는 초기에 그늘을 만들어 토양을 피복하여 역초의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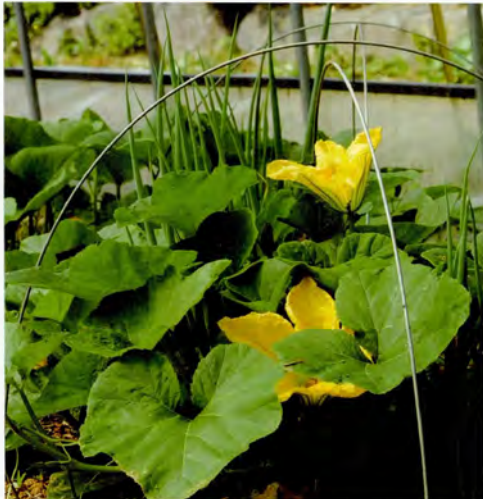
10. 토마토와 부추

부추의 균근(菌根)이 토마토의 병원균을 막아준다. 혼식해서 토양미생물상(micro-organism)이 풍부해 진다.



9. 토마토와 땅콩

토마토의 저항성이 커지고 병충해에 강해진다. 토마토의 뿌리와 땅콩의 뿌리가 잘 맞기 때문에 토양미생물상(micro-organism)이 풍부해 진다.



11. 대파와 호박

대파가 토양 병해충을 막아주고 호박에 찾아오는 호박벌이 대파에 붙은 유충을 먹는 효과가 있다.

채소와 꽃



1. 페튜니아와 딸기

꽃으로 곤충을 유인하여 딸기가 수분을 하도록 도와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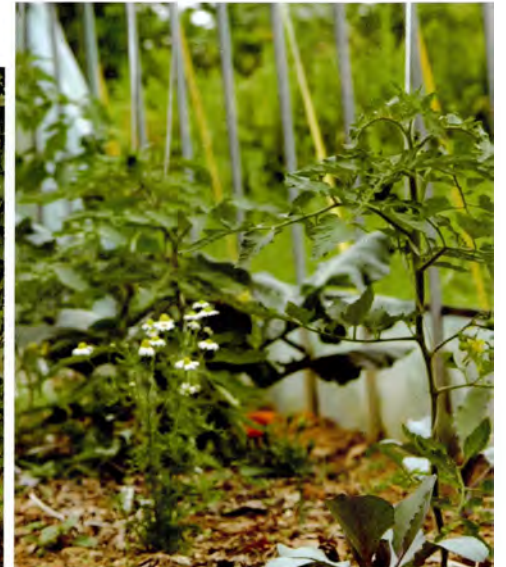
2. 사루비아와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해충인 배추흰나비, 배추좀나방을 막아주고 십자화과 채소류 혼식에 응용할 수 있다.



3. 토마토와 바질

바질은 토마토가 잘 자라게 하고 맛을 좋게 한다. 또한 온실흰가루병을 막아준다. 바질은 페스토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파스타 또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



4. 토마토와 케모마일

배추흰나비와 진딧물을 막아주고 토마토가 잘 자라게 하고 맛을 좋게 한다.



5. 양상추, 차이브와 장미 ▶

차이브는 장미의 흑성병을 막아준다. 또한 채소를 잘 자라게 하고 맛을 좋게 한다.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 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발아

씨앗들은 일단 그들을 보호해주는 껍투리, 열매, 껍질 안에서 모든 조건이 발아에 맞을 때까지 휴면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후 발아에 맞는 조건이 형성되면 종피가 벗겨지고 잎과 뿌리가 솟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발아는 새로운 식물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휴면기 이후에 성장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대부분의 식물은 발아를 하기 전에 일정한 양의 습기, 온도를 필요로 한다.



물

씨앗이 자랄 때, 물의 함유량이 낮은 상태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싹이 다시 자라기 전에 물을 흡수해야 한다. 물은 또한 싹이 저장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호흡은 증가하고 성장은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은 해로울 수 있다. 씨앗은 또한 발아를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있는 씨는 발아하기가 힘들다. 씨앗들을 정확한 깊이로 심어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습기가 있지만 젖은 상태가 아닌 중간정도의 공간이 있는 상태로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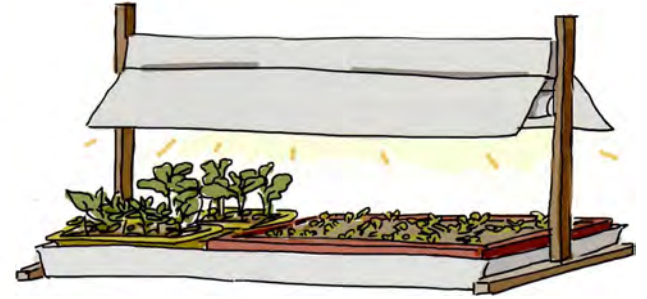
적당한 온도

온도는 발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씨들은 토양 온도가 21도에서 24도 정도 일 때 발아하기 좋다. 그러나 발아를 위해서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따뜻한 온도가 요구되는 씨앗들이 있다. 몇몇 씨앗들은 극도의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다. 씨앗들이 발아를 한 후에는 다소 시원한 환경이(15-18도) 보통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토양은 주위 공기보다는 온도가 더 높아야 한다.



빛

빛의 정도도 발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몇몇 씨앗들은 발아를 하는데 있어 빛이 요구된다. 그리고 씨앗들은 얇은 토양으로 덮거나 전혀 덮이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서 빛이 씨앗들에게 도달 할 수 있다. 다른 씨앗들은 발아를 하는데 어두운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토양과 함께 변하거나 키우는 화분을 신문이나 다른 공기 순환이 가능한 암막으로 덮여질 수 있다. 많은 채소 씨앗들은 빛이 있거나 어둡거나 두 경우 모두 발아가 가능하다.



적합한 토양

씨앗은 또한 발아를 위해서 특정한 흙의 상태를 필요로 한다. 배합토는 잘 부서지고 습기가 있어야 하지만 너무 축축해서는 안 된다. 토양에 너무 많은 유기물이 있는 경우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발아를 방해 할 수 있다. 씨앗을 발아시키고 육묘를 위한 토양은 유기물이 많거나 영양이 풍부할 필요가 없다. 구성하는 잎의 종류에 따라 부엽토는 발아를 가능하게 하는 화학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다. 바다 쪽에서 발견되는 소금기 있는 토양은 씨앗에서 습기를 가져와서 발아를 방해할 수 있다. 좋은 파종용 토양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토양을 직접 만들어 도 된다.

냉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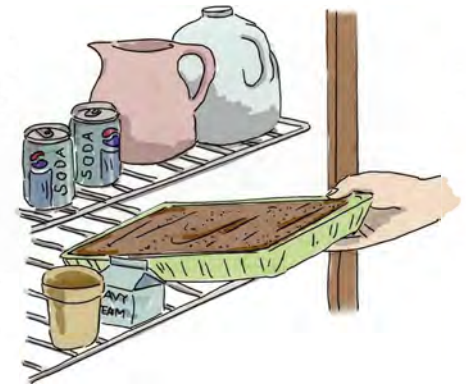
몇몇 식물들 중, 특히 따뜻하거나 열대기후에서 온 식물들은 씨앗이 발아 하는데 있어서 까다롭지 않다. 씨앗들이 자라는 순간, 약간의 습기만 제공해 주면 된다. 그러나 추운 지역이나 온도에서 자라는 내한성 식물들은 씨앗들이 휴면기를 깨기 전에 냉처리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씨앗들은 성장시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수확한다. 꽃은 시들거나 죽고 열매는 볼록해 지고 익게 된다. 씨앗들이 흩어질 준비가 될 때까지 씨앗들은 자란다. 만약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면 발아는 바로 시작되고 식물의 다음 후손에게는 끔찍한 상황이다.

가을의 내러기는 기온이나 겨울은 곧 연약한 묘목을 해칠 것이다. 이 식물들은 추위가 가고 따뜻한 날씨가 올 때 까지 발아를 하지 않는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연에서 나와 인간의 손에 의해서 파종 될 때, 씨앗들은 여전히 발아하기 전에 추위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씨앗으로 번식할 때 인위적으로 냉처리 시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2. 패랭이꽃 (Dianthus)

패랭이꽃은 곤충에 의한 타가수분 식물이다. 만약 씨를 저장할 목적으로 특정 품종만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한 가지 품종만 심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배하기 쉬우며 그 종류도 일반 패랭이꽃에서부터 상록패랭이, 왕수염패랭이, 술패랭이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종은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삭이 단단해지고 갈색이 되면 수확한다.



상록패랭이

패랭이 씨앗



술패랭이



왕수염패랭이



패랭이

GardenIn TIP

- 패랭이꽃은 발아율이 평균적으로 높아 씨앗을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심는 것이 좋다.

패랭이 씨앗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 온도 : 22~28도
- 식재간격 : 왜성종은 15cm 간격, 큰 품종은 20cm 간격
- 파종깊이 : 살짝 흙으로 덮어주고 토양표면을 가볍게 눌러준다.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 후 7일~14일
- 씨앗 저장 조건 :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

씨 수확하기

식물을 가까이서 잘 관찰하여 시기에 맞게 수확해야 한다. 식물에서 삭을 잘라내서 종이봉투에 담아 최소 2주 동안 실내에서 건조시킨다. 이 기간 동안 삭은 열리고 씨를 내보낼 것인데 이 씨들은 봉투의 바닥에 떨어진다. 씨가 저장되기 전에 완전히 건조되도록 한다.

은 씨앗들을 뿌려놓으면 된다. 씨앗은 겨울동안 저장되었다가 봄에 파종할 수 있다.

실내파종

1. 마지막 봄 서리가 오기 8~10주 전에 실내에서 씨앗을 뿌린다.
2. 씨앗 모판을 식물들이 발아할 때까지 골고루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해준다.
3. 예상되는 마지막 서리가 다가올 때, 찬 기운을 씌게 해서 튼튼하게 해주고 정원에 옮겨심기를 한다.



발아되기 시작하는 상록패랭이 모종



모토로 이식되기 직전의 상록패랭이 모종

실외파종

패랭이꽃은 씨앗으로 키우기 쉬운 식물이다. 가을에 잘 준비된 모판에 종

Nice to see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종자 100선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

8월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화나눔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텃밭정원활용북 101 저자

여름의 최절정인 8월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식물관리는 정말 쉽지 않다. 봄 작물이 끝나고 가을 작물을 준비해야 하는 8월이다. 가을 작물 대표 채소인 무와 배추를 심을 준비를 하기 위해 파종을 해야 한다. 파종 후 벌레를 예방하기 위해 망을 씌어야 한다. 또한 관수 관리도 요구되며 새벽이나 저녁에 관수를 해야 한다. 봄에 쓴 채소들의 종자들이 익어서 채종하기 시작하고 과채소는 익는 즉시 따 주어야 한다. 건조하게 되면 충이 생기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 등 병이 생기에 개여줘나 여뀌를 넣고 끓여 식힌 물을 1000배액으로 뿌려주면 충을 예방하고 망초나 개망초를 설탕에 1:1로 넣어 2주간 숙성 후 1000배액으로 뿌려주면 탄저병, 잎오갈병에 좋다. 흙꽃을 따서 설탕에 1:1로 넣어 2주간 숙성 후 1000배액으로 뿌려주면 과실이 잘 달린다. 잡초로 뽑는 쇠비름이나 비름을 나물로 활용 할 수 있다.

강동구 고덕동 공동체텃밭

2015년 8월 4일



쇠비름 고추장 무침



비름 들기름 무침

2015년 8월 8일



2015년 8월 13일



해바라기



아몬

맨드라미 개화

2015년 8월 22일



2015년 8월 26일



고구마

메밀 꽃



열무수확

2015년 8월 29일



2014년 8월 3일



2014년 8월 21일



수세미

열무 및 무 파종 후 일주일

비닐찍우기

2014년 8월 28일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아마란스

들깨

파종모습

통탄지

초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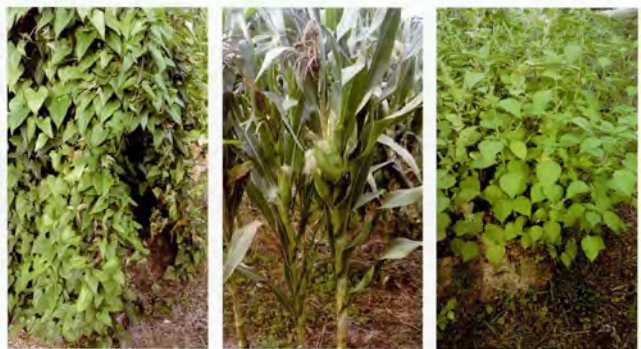


아몬



결명자

2014년 8월 31일



참마

옥수수

들깨 꽃

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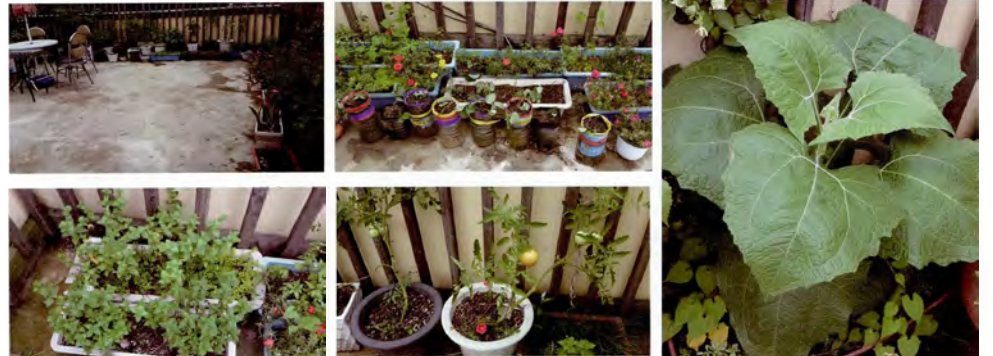
월계동 옥상모습

2015년 8월 2일



동근잎유홍초 개화

2014년 8월 3일



아몬과 더덕 개화

2015년 8월 23일



2014년 8월 24일



채송화 개화



동근잎유홍초 만개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시원한 여름을 연출하는 그린 인테리어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

A. 수경재배

예구구, 너무 답지요?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은 지형이 분지라서 다른 곳보다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엔 훨씬 더 덥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뻘뻘~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저는 집안 여기저기 늘어져있는 소품들을 다 걷어치우고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수경재배(식물을 흙에 심지 않고 물만으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 아시지요?) 코너를 마련해서 시각적으로나마 더위를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어항, 고추장병, 꿀병, 실린더와 비커나 사탕이 들어있던 병과 양주병까지 총집합! 집안에 유리병이란 유리병은 한자리에 다 모였네요.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유리병이 한데 모이니 리듬감이 살아나는 걸요~ 띠리링~ 정말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화초를 키우다보니 세상에 수경재배처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준비물이랄 것도 없이 유리병 몇 개만 있으면 OK~

수경재배를 한군데 모아 배치할 때의 유용한 센스 하나 알려드릴까요? 같은 모양의 유리병에 각각 다른 식물로 하거나 모양이 제각각인 병에 같은 식물이 하게 되면 더욱 멋집니다.



수경재배를 할 때는 식물의 뿌리에 붙은 흙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깨끗이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어느 과학 잡지에서 봤는데 똑같은 기온이라고 해도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느끼면 실제로 체감온도가 내려간다고 해요. 자아, 그렇다면 여러분도 집안에 있는 유리병 다 꺼내오세요. 수경재배로 무더위를 좀 물리쳐 보자고요~

B. '에어 플랜트'

연일 30도를 훨씬 넘는 한 여름의 무더위.

아이스커피 손에 들고 에어컨 앞에 서있고만 싶은 마음이지만 책상 위엔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바로 지금 같은 때, 책상 한 편에 작은 애완 식물(Pet plant) 하나쯤 두고 가끔 시원한 물을 스프레이해주면서 나만의 작은 피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 분위기에 딱 맞는 식물인 에어 플랜트(Air Plants)를 소개합니다.

'공중 식물' 또는 '공기 식물'로 불리는 에어 플랜트는 말 그대로 흙에 심지 않고 공기 중의 수분과 유기물로 살아가는 식물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은 '틸란시아(Tillandsia)'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너무나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이거 정말로 살아있는 식물 맞아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축에 속할 뿐만 아니라 값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귀족 식물'로 대접받았지만 지금은 전보다 많이 알려지고 마니아층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으로도 구하기 쉽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남미가 주요 원산지인 에어 플랜트들은 화기가 따로 필요 없는 데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라면 창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잘 자라는 터라 누구라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지요.



휴에 심지 않아도 되니 관리가 너무 편하고 공간에 제약이 없다보니 나무 줄기 사이에 척~ 걸쳐 놓거나 유리컵에 살짝 담아 놓기만 해도 그대로 독특한 멋이 흘러넘치는 매력덩어리가 바로 이 에어 플랜트예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나만의 독특한 그린 인테리어를 연출하기에도 아주 좋은 식물. 여름엔 소라나 불가사리, 조개껍데기 같이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소품과 같이 놓아두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클로버 초콜릿 행복
행복과 행운을 동시에 드립니다

하늘국화 금방식
금나리 독대
금향석을 드립니다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상품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쭉니다!!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텀버시리즈
아니랄~수, 할~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식, 말해 위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정원의 여름 처녀

글라디올러스(Genus Gladiolus)

글라디올러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름꽃이다. 대표적인 분식재 구근으로 200여종의 속으로 주로 남아프리카, 자종해, 아라비아 반도, N. W. 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서아시아의 돌이 있는 비탈길, 주기적으로 건조한 초지, 혹은 늪지 지역에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넓고 갈매기 모양의 꽃이 눈에 띄게 순서를 이루며 피어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에 심겨지기보다 절화용으로 많이 심겨지는데 앞으로 다양한 품종들을 정원에 심게 된다면 여름내내 혹은 가을까지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꽃은 각각 6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중간 부분 하나의 중심 꽃잎과 3개의 작은 꽃잎이 아래를 받치고 2개의 꽃잎이 측면 혹은 날개모양으로 개화하여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한다.

꽃과 잎의 식물로 잎은 길게 뾰고 사이에 튼튼한 꽃대를 중간에 올리게 되는데 꽃은 아래서부터 차례를 이루어 피어난다.

10,000여개의 교배종과 재배종이 원예, 전시, 꺾꽂이를 위해 개발되고 있다. 이들은 3개의 주요 그룹, Grandiflorus, Nanus, Primulinus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들 모두 꽃은 줄기에 나란히 나는 정형적인 배열로 나머지를 그늘에 재배를 하게 되면 꽃이 많이 달리지 않아 사다리 원뿔모양의 덜 형식적인 꽃이 된다. 식재는 한 구덩이에 10~20개씩 모아 심거나 열적으로 심는 것이 좋다. 심는 깊이는 12~16cm이상 깊게 심고 구덩이에 여러 개를 심을 때는 반드시 반복하고 열적으로 심은 것은 여름날 좋은 꽃꽂이용으로도 매우 좋다.

또 이들을 장기간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한 서리가 없어지는 4월중

순 이후 2주 간격으로 5월 말 혹은 6월까지 심게 되면 심은 후 100~120일 사이에 꽃을 피우게 되어 6월말부터 거의 10월까지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글라디올러스는 정원용이라 해도 키가 크고 꽃이 커 지주대를 해 주는 것이 안정한데 열식의 경우는 네트를 쳐주는 것이 좋고 군식한 것은 철사로 만들어 진 지주대를 이용하면 된다.

이들은 서리에 매우 약해 이른 봄에 심는 것은 비닐 등으로 서리 해를 막아주어야 하고 겨울에도 저장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생육지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양토에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멀칭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고 건조기에는 수분을 잊지 말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꽃이 아래서부터 피고 시들면 매일 꽃을 따내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 개수 이상 꽃을 피우고 볼품이 없어지면 잎은 남기고 꽃대를 잘라주고 마지막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

이유는 내년엔 필 구근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근을 캐내는 방법은 우선 서리오기 전 잎이 노랗게 변해가면 실시하고 서리 전에 반드시 캐내어야 한다. 잎과 줄기가 붉은 상태로 캐내어 2일 정도 말린 후 흙을 털고 작은 인경(새끼구근)은 골라내고 중간에 굵은 구근만 따로 모으고 오래된 구근은 버린다. 2주 정도 더 말린 후 양파망 등에 포장하여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서 보관한다. 그러나 반드시 보관 전 구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좋은 방법은 상자에 완전히 마른 상토 혹은 톱밥 등을 깔아다가 층을 이루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병충해로는 글라디올러스 바구미, 삼주벌레, 진딧물 민달팽이 등에 의한 피해가 종종있다.





물 주변의 신사

글리세리아(Genus Glyceria)

글리세리아는 주로 습지와 혹은 수변과 수생식물로 분류되어 16종의 속으로 여러해살이 그라스이다. 주로 북쪽의 온대지역에 있으나 호주, 뉴질랜드, 남미에서도 발견이 된다. 물 깊이가 75cm인 곳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며, 이들은 잘 자라고, 밀집하고, 확산하는 식물이다. 넓은 저수지를 덮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 종은 사용되지 않고 주로 무늬종인 *Glyceria maxima* 'Variegata'가 주로 많이 이용된다.

이 무늬종 글리세리아는 흡사 무늬종 억새 등과 닮았다. 햇빛이 잘 들고 물 깊이가 15cm인 곳까지 기르고, 지속적인 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넣어 기른다. 아니면 햇빛이 충분한 물기가 많은 모든 화단의 흙에서 기른다.

종식은 주로 봄에 분주를 하고 해충 및 질병은 별로 없지만 나방에 의한 잎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천일동안 피어라

천일홍 속(Genus Gomphrena)

천일홍은 꽃이 오래 핀다는 뜻을 가진 식물로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 되는 것들은 이른 봄에 맞추어 겨울재배를 하는 축성용이다.

직립하거나 포복성, 때론 가지를 치는 부드러운 털이 있는 일년생 식물, 간혹 다년생 식물의 90여 종의 속으로 호주, 열대 중앙, 남미의 넓고 모래토양에서 축축한 삼림지의 다양한 서식처에서 발견된다.

창형에서 난형모양의 잎은 대생이다. 두드러진 다양한 색의 포엽을 지닌 직립하는 클로버 모양 두상화 종기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자란다. 서리가 내리는 지역은 여름용 모판이나 일년생 식물 모판에 기른다. 두상화는 꽃잎과 건조화용으로 좋다.



버베나 보나리언시스

작은 꽃물결이 모여 보라색 꽃바다를 만들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일년초이다. 키가 크게 자라면서도 꽃꽂하게 자라 쓰러짐이 없고 특색있는 가을 연출이 가능하며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 최고인 정원식물이다.

Special Issue

가을맞이 정원식물

정마속을 헤집고 나온 뜨거운 햇살이 보란 듯이 버티고 있는 여름이다. 우리의 정원식물들도 나름 이 무더운 여름을 그동안의 노하우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가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여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제 가을을 위해 정원을 새롭게 단장을 하거나 일부 보완을 하고자 한다면 더 늦기전에 해야한다. 그림의미에서 이번호에서는 지금 식재하면 좋은 가을맞이 정원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지금시기에는 큰 규격의 포트묘를 구입하여 식재해야만 바로 가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글 사진 편집실



충꽃 스타링실버



충꽃 힌트오브골드



충꽃

충꽃

충충이 보라색꽃을 피우는 우리의 토종식물로 꽃 뿐만아니라 잎에서 나는 향기도 좋은 식물이다. 근래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잎이 황금색이거나 은색을 띄는 개량된 충꽃종류가 국내에도 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품종들은 잎이 아름다워 꽃이 없는 봄, 여름에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산부추

가을에 피는 자주색 부추로 은은한 색감이 뛰어난 다년초이다. 단독식재보다는 털수염풀, 무늬새, 매발톱, 후룩스 봄바람 등 봄, 여름식물과 혼성식재하면 좋다.



하늘용담

가을의 끝자락을 장식하기 위해 봄부터 여름을 지나는 긴 시간동안을 참아온 가을하늘의 별과 같은 용담이다. 하늘용담은 늦가을까지 서리가 와도 꽃을 피우는 찬란한 보라색꽃이다.



코레우리

가을하면 여기저기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국화축제이다. 국화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매력도 있지만 새로운 느낌의 다양한 코레우리 품종으로 축제를 기획하거나 가을정원을 장식한다면 더욱 새로운 맛을 전달해주기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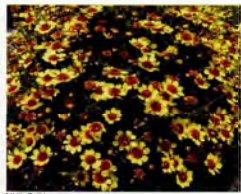
버진



아이보리파크



애플링



멜로우링



오렌지파크



핑클



화이트파크



골든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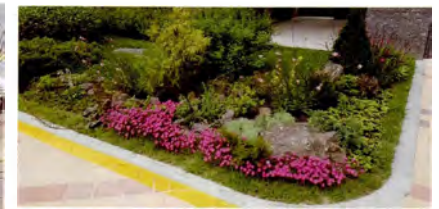
억새 리틀제브라

가로형의 무늬가 이색적인 억새로 늘어지는 잎의 선이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잎의 무늬와 초형이 잘 어울려 가을 대형의 포인트용으로 좋다. 가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큰 포기로 재배되어진 포트묘를 구해야 한다. 지금 땅에서 굴취한 억새는 너무 자라있어 바로 옮겨심어도 시들기 때문이다.



큰평의비름 만추

포기를 형성하는 평의비름으로 특히 늦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피는 둥그란 형태의 꽃봉오리는 그 자체로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식물 자체의 초형이 좋아 군식도 좋지만 정원의 곳곳의 포인트식물로도 제격이다.



상록잔디파랭이

봄 내내 진분홍 물결을 이루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어디선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진분홍 꽃전지를 만들어낸다.



몰리니아

직선형으로 선을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그라스이다. 라인식재를 하면 좋고 특히 아스타 등 가을식물과 혼성식재하여 라인형태를 이루면 더욱 좋다.



상귀니움 말채나무 '미드윈터파이어'

가을보다는 겨울정원을 위한 최고의 관목이다. 잎이 모두 떨어지고 난 뒤 보여주는 붉은빛과 오렌지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줄기의 색감은 겨울 최고의 경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겨울정원을 위한 소재로 적극 추천해본다.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 (박스정원)

규격			* 부가세 별도
구분	규격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600,000	
	1,000×1,000×400	700,000	
	1,000×1,000×600	800,000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광주 5.18 민주광장



광주 5.18 민주광장



일죽면사무소



군포 철쭉축제



군포 철쭉축제



광주 봄꽃전시회



강동 도시농업박람회



일산 식생활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강동 도시농업박람회



산청산림박람회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

잎의 색깔이 아름다운

서양국수나무

정원의 포인트 및 생울타리 소재로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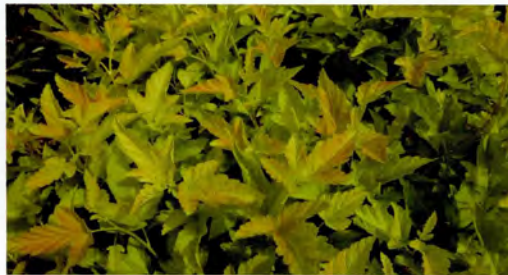
글 사진 편집실



다트스골드

우리는 국수나무라는 쉽고 재미있는 식물을 알고 있다. 산기슭이나 냇가 주변에 많이 나는 관목으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국수나무는 나무의 심부가 옥수수 강처럼 생겼는데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얇은 가지를 이용심부를 길면 국수가 기계에서 밀려 나오 듯 국수모양과 같이 심부가 빠져나온다. 때문에 국수 나무라 불린다. 아직 조경용으로는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약간의 그늘에 식재하면 매우 좋다.

우리의 국수나무는 학명이 *Stephanandra incisa*로 주로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양국수나무가 국내에 소개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양국수나무는 하얀 꽃이 크게 피어 오히려 공조팝나무에 더 가깝고 학명도 우리의 섬국수나무와 같은 *Physocarpus* 속 식물로 형태적, 생태적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황금색의 양국수나무는 '루테우스(*Physocarpus opulifolius* 'Luteus')라는 품종으로 미국원산이다. 이 품종을 중산국수나무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이름의 차이가 잘못된



다트스골드

듯하다. 그리고 자엽양국수나무라 하여 인기가 높은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이 '디아블로(*Physocarpus opulifolius* 'Diabolo')'라 하는 품종이다. 이들의 특징은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고 햇빛을 좋아하며 일부 약간의 음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용은 주로 문양과 칼라를 보여주기 위해 이용된다.

하지만 황금색의 루테우스는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여름에 잎이 타는 현상이 있고 디아블로는 여름이 되면 칙칙하고 어두운 청갈색을 나타내 약간은 관상가치가 떨어지기도 한다.

최근 이들의 유사종이긴 하지만 많이 개선되어 여름에도 잎이 타지 않고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는 '다트스 골드(*Physocarpus opulifolius* 'Dart's Gold')와 여름에도 진한 자엽과 적엽을 나타내는 '레드바론(*Physocarpus opulifolius* 'Red Baron')이 최근 소개 되고 있다.

이들 양국수나무는 잎의 칼라와 줄기의 칼라 그리고 꽃과 열매에 있다. 이른 봄 새싹을 피우며 발현하는 황금색과 초콜릿색은 매우 아름다워 탄성을 자아낼 만하다. 그리고 꽃은 5월에 하얗게 피는데 자엽계는 약간의 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공조팝과 같이 피어나는 꽃은 아름답다.



루테우스

하얀의 꽃이 주먹처럼 많은 꽃이 한꺼번에 피어난다. 그리고 꽃이 지

면서 그 이삭이 또 한 번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바로 골돌이라는 꼬투리가 주황색과 빨강색으로 익어가며 새로운 꽃송이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여름내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는 줄기가 또 한 번의 아름다움과 관상의 가치를 주어 아름답게 보여주는데 특히 레드바론의 줄기는 겨울에 검게 보여 더욱 기하학적인 멋으로 다가온다.

이들의 관리는 매우 쉬운데 번식은 주로 삽목으로 하고 봄 가을로 커팅이 가능하다. 새순에 꽃을 피우게 되므로 이른 봄 나무 수형을 잡고 장마가 끝나면 옷자라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정리하면 된다.

참고로 새순에서는 좀 더 밝은 칼라를 보여준다. 주로 적용 가능한 장소는 띠녹지에 포인트로 적용하거나 열식으로 심어 생울타리 개념으로 커팅하면 좋다. 물론 황금색과 적색을 섞어 구간별로 나누면 더욱 좋다. 정원에서는 포인트 소재로도 매우 좋다.

토양을 별로 가리지 않아 어떤 곳에서도 잘 적응하므로 옥상이나 약간의 음지에서도 좋다. 다만 주요 관상 포인트가 잎의 칼라를 보는 것이므로 너무 건조함은 피하는 게 좋다.



루테우스

“이른 봄 새싹을 피우며 발현하는
황금색과 초콜릿색은 매우 아름다워
탄성을 자아낼 만하다.”

화려한 신품종 관목

무궁화 겹꽃시리즈

- 겹꽃으로 매우 화려한 무궁화 품종입니다.
-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신소재 관목입니다.
- 테마정원으로 무궁화원을 조성할 때 안정맞춤입니다.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화이트시폰



라벤다시폰



브라벤토



차이나시폰



핑크시폰

동자승의 상기된 얼굴을 닮은 동자꽃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동자꽃의 관찰

홍조를 띤 동자승의 얼굴은 붉은 색이겠지만, 이들도 잘 관찰을 하면 얼굴색이 다양함을 알 수가 있다.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두려울 때, 부끄러울 때의 얼굴색이 각기 다른 모양이다. 동자꽃이라는 이름은 매우 청초한 꽃이 마치 동자승의 상기된 얼굴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개 흔한 계통의 동자꽃들은 주황색을 띠고 있지만, 붉은색 중에서도 유난히 분홍색 쪽으로 치우친 연한 색깔의 꽃이 드물게 있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붉은색만 띠는 강렬한 얼굴도 백두산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다. 꽃잎 전체가 모두 흰색을 띠는 흰동자꽃은 강원도 어느 산에 자생했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전설적인 꽃으로 되어 버렸다.

동자꽃의 특징

고산지대의 깊은 골짜기 또는 비교적 높은 산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줄기는 몇 개씩 모여 나고 곧게 서며, 전체에 긴 털이 많고 마디가 뚜렷하다. 높이는 40~100cm 정도이다.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끝이 날카로우며 잎자루가 없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길이는 5~10cm, 폭 2~5cm로 잎 앞면과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황록색이다.

동자꽃의 꽃과 열매

꽃은 6~7월에 주황색, 주황색, 적색, 분홍색 또는 백색으로 피고,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낸 짧은 꽃자루 끝에 1송이씩 붙으며 취산꽃차례를 이룬다. 화관(花冠)은 지름 4cm 정도이다. 꽃받침은 긴 곤봉 모양이고 끝이 5개로 갈라진다. 꽃잎은 5개이고 납작하게 벌어지며 끝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양



가는동자꽃

쪽에 1개씩의 좁은 조각이 있다. 또한 가장자리에 짧고 작은 톨니가 있으며, 꽃잎 안쪽에 10개의 작은 비늘조각이 있다. 수술은 10개, 암술은 5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8-9월경에 익으며, 종자 결실이 되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갈색으로 변한다. 열매는 꽃받침통 속에 들어 있다.

동자꽃 무리들의 비교 특징

일반적으로 흔한 동자꽃(*lychnis cognata* Maxim.)은 꽃이 주황색이거나 주황색이면서 5개의 꽃잎 끝부분 가운데가 오목하게 살짝 들어간다. 잎은 모두 마주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에서는 아주 짙은 적색 계열의 동자꽃도 볼 수 있고, 털동자꽃(*lychnis fulgens* Fisch. ex Spreng.)과 제비동자꽃(*lychnis wilfordii* (Regel) Maxim.)도 볼 수 있다. 꽃색이 연한 분홍색의 꽃은 전국 각지의 산지에서 가끔 볼 수 있지만, 꽃이 완전히 백색인 흰동자꽃(*lychnis cognata* for. *albiflora* W.T.Lee)은 야생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털동자꽃은 전체에 길고 연한 털이 많으며, 꽃잎이 동자꽃보다 더욱 짙은 색이고 꽃잎 끝이 조금 더 깊게 갈라지므로 쉽게 구별이 된다. 제비동자꽃은 백두산 지역과 강원도 높은 산에서 볼 수 있으며, 꽃잎이 가늘고 깊게 갈라져서 마치 제비가 하늘을 나는 모습처럼 생겼다. 가는동자꽃(*lychnis kiusiana* Makino)은 줄기와 잎이 유난히 가늘게 생겼으며, 꽃잎 끝부분이 뾰족뾰족 갈라지고 아주 밝은 주황색이다.

동자꽃의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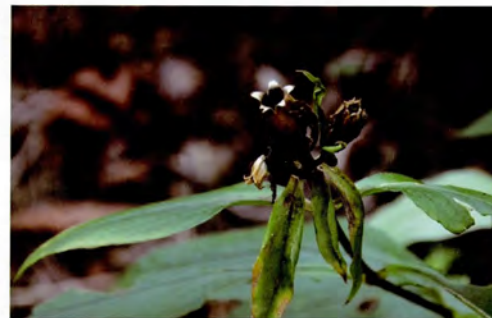
옛날, 강원도의 어느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그 곳에는 스님과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다. 어린 아이는 스님이 마을에 갔다가 부모를 잃고 해매는 것을 불쌍히 여겨 데려온 아이였다. 이름도 성도 몰랐고 그래서 스님은 어린 아이를 그저 동자라고 불렀다. 동자날 무렵이었다. 스님은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어린 동자에게 며칠간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고는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마을에 도착한 스님은 암자에 혼자 남은 동자를 염려하며 허겁지겁 준비를 했지만 저녁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돌아가려 했지만 암자로 가는 길에 눈은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쌓여 도저히 암자까지 갈 수가 없었다. 강원도 산간지방은 겨울에 한 번 눈이 쌓이면 겨우내 녹지 않고 있다가 늦은 봄이 되어서야 눈이 녹기 시작한다. 그래서 스님은 어린 동자가 걱정돼 발을 동동 구르며 오로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고, 어린 동자는 눈 때문에 스님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이제나 저제나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서둘러 암자에 도착한 스님은 어린 동자가 마당 끝 언덕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워 동자를 부르며 걸음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동자는 말이 없었다. 동자는 스님이 내려간 언덕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마당 끝에 곱게 앉은 채로 얼어 죽었던 것이다. 스님은 너무나 슬퍼하며 죽은 동자를 바로 그 자리에 곱게 묻어 주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동자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났고, 한여름이 되면 꼭 동자의 얼굴 같은 붉은 빛의 꽃들이 마을로 가는 길을 향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죽은 동자를 불쌍히 여기며 이 꽃을 동자꽃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동자꽃



동자꽃군락



동자꽃열매



분홍동자꽃

동자꽃의 생육환경

동자꽃은 산지의 반그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높은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꽃이다. 높은 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흔히 일교차가 크고 대기 중의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많다. 여름철 다른 꽃들이 뜸할 때 동자꽃 종류들이 만개를 하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진다. 어느 정도 높은 산의 능선부 초원 군락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힘들게 산을 오르다가 한숨 쉴 무렵에 나타나는 꽃이라 할 수 있다. 배낭을 풀어놓고 한숨 쉬면서 다양한 동자꽃 종류들을 관찰하고 난 후, 다시 하는 등산은 매우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도 및 번식법

동자꽃 종류들을 정원에 심어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고, 동자꽃屬의 다른 종들과 교배를 통해 원예종을 개발하고도 있다. 꽃이 아름다워 원예용으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꽃이다. 원예종으로 기를 때에는 종자 결실기에 벌레들이 많아 종자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벌리 수확하여야 한다. 한방에서는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할 때 약재로 쓰기도 한다.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새싹이 올라오면 포기나누기를 하고, 8~9월에 익은 종자는 한 송이에서 약 30~40개 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을에 뿌리거나 이른 봄에 뿌리면 많은 새싹을 얻을 수 있다. 물기가 많은 반그늘에 심어 기른다.



분홍동자꽃



붉은잎동자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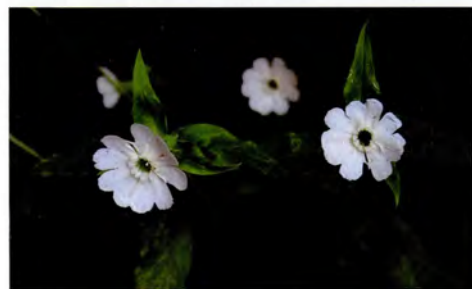
제비동자꽃



털동자꽃



제비동자꽃



흰동자꽃



흰동자꽃군락



털동자꽃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www.gardenjoa.com

정원도구 특가 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재!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스 틸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림),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겉손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자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가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샐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서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⑧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중간에 포인트로 심으면 깔끔함과 더불어 경관적으로도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다른 지피식물에 비해 특별한 관리를 필요하지 않기에 아파트 등지의 비관리지역에 식재하면 좋고 특히 출사철 미카엘라 등 새로운 품종은 잎의 무늬가 매우 좋아 아름다운 꽃 그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사철류는 내한성이 강해 서울에서도 상록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단지 겨울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단풍과 낙엽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을 막아주어야 한다.

주로 삼목을 통해서 번식하고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종은 생육이 강건하여 재배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다.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다양한 품종, 겨울상록 출사철

출사철은 상록관목성으로 음지 또는 벽면 부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소재이다. 양지에서 음지까지 잘 자라며 약간의 물기가 있는 토양은 물론 메달라도 낙엽이 쌓이는 곳이면 생육이 좋다.

일반적으로 지면으로 누워 자라는 특성이 있어 나무아래 등지의 음지에 지피식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 기근이 있어 벽면부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 또한 차폐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잎색과 무늬가 있는 품종이 많이 있어 양, 음지에 지피식물로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양한 품종은 황금색, 은색의 무늬들이 잎에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음지에 출사철 품종만으로도 색깔에 맞추어 디자인하면 음지를 밝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음지에 색깔과 볼륨감을 주기위해서 출사철 무늬종 품종 한 종류를 바탕으로 식재하고 수국, 호스터 등 음지에 잘 적응하면서 키가 있는 식물들 중간



Q&A

Q: 일년초 후룩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후룩스는 다년초로 장기 개화되고 매우 아름다워 자주 이용되고 있는 정원용 소재입니다. 또한 다년초 후룩스 못지 않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일년초 후룩스입니다. 화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워 일년초 소재로 정원에 적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키는 약 50-60cm정도 자라 군식하거나 키작은 식물과 혼식할 때 뒷줄 식물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여름의 대표 수중식물 연꽃, 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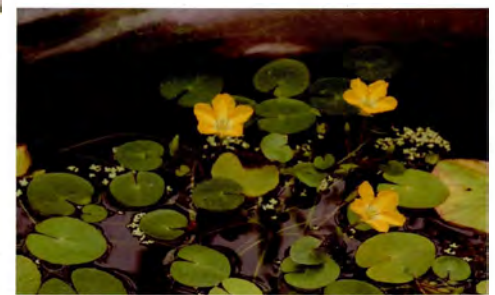


최근 연꽃과 수련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련이나 연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확하고 바른 재배가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연과 수련은 100% 태양을 받아야 꽃이 좋은 수중식물이다. 연못 위에 뜬 연과 수련이 사는 환경은 태양을 가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장애요인이 없다. 연과 수련이 생육하는 장소는 연못의 뿔췌으로 매우 많은 유기양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을 재배할 때는 매우 많은 퇴비를 요구한다. 따라서 작은 화분에 연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아주 양질의 퇴비를 이

용해야 아름다운 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을 제대로 하는, 품종이 제대로 분리된 믿을 만한 곳에서 연을 구입 재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일반적인 식용 연을 물항에 넣어 재배하면 거의 꽃을 피울 수 없다. 비료를 주는 방법은 봄 식재 시에는 양질의 퇴비를 충분히 하고 생장주기에 인산질, 그리고 개화기에는 인산질과 칼슘성분의 비료를 주면 효과적이다. 주로 칼슘제를 엽면시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노후화된 아래 잎과 물속의 녹조류 등 햇빛의 투과를 막는 제한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연과 수련이 생육하는 수온도 매우 중요한데 수온이 22-30℃에서 가장 꽃을 왕성하게 피운다. 따라서 풀과 이끼 등을 적기에 제거하고 병든 잎, 마른 잎 등을 제거하고 잎이 너무 과다할 때도 잎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생장초기에는 수심이 10-15cm가 적당하고 생육 중기에는 20-30cm가 적합하므로 장마기에는 배수를 실시하고 수심이 일정한 연못의 경우는 수중에 발을 설치 수면에서 20-30cm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노랑여리연꽃

3. 암석가든용 식물

겨울 상록의 하얀색 꽃무리 돌꽃잔디



이번에 소개하는 돌꽃잔디(*Saxifraga arendsii*)는 *Saxifraga*속으로 *Saxifraga*속 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440여종이 존재하고 대부분 육상, 암석가든용 식물로 유용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다.

돌꽃잔디는 암석가든의 돌 위로 깔리면서 4월말 경부터 5월에 걸쳐 하얗게 꽃을 피워 마치 꽃잔디와 비슷한 느낌을 주어 이름을 돌꽃잔디로 붙여졌다. 식재 후 1년 정도만 지나면 잎의 형태가 커지고 구형을 이루며 잎 자체만으로도 매우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일부 *Saxifraga*속의 경우 건조와 복사열에 강한 반면 습에 매우 약했지만 돌꽃잔디는 웬만한 습기에도 강한 강건함을 가지고 있다.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여 빙갈레 단풍이 든 잎 위로 하얀 눈이 덮여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잎과 꽃 모두 귀엽고 아기자기하여 암석가든에 안성맞춤소재이다. 돌틈 혹은 2-3포기씩 모아 심으면 볼에 눈꽃 같은 하얀 꽃과 이후에 귀여운 잎을 통해 암석가든에서 연중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역새가 부럽지 않은 우리의 친근한 조경소재
수크령



가을을 대표하는 테마 조경소재는 단연 역새와 구절초 그리고 아스타종류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을 하면 너무도 서러워할 소재가 있다. 바로 수크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로 길가 독이나 밭둑 하천가 혹은 해변의 언덕풀밭에 나는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이 수크령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만 큰 군락을 무리지어 피어가면 장관을 이루는 식물이다. 몇 년전에 청계천의 새로운 개장에 앞서 가장 환영받은 식물이 수크령이었다. 수크령은 그야말로 잡초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선 강건하다. 뿌리가 매우 발달해 웬만한 곳에서는 뿌리를 잘 박고 산다. 그리고 내염에도 매우 강하다. 맹아력도 매우 좋아 예전에는 소의 좋은 먹이로도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의 뒹에 쉽게 달라붙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고 많은 종자를 달고 있는 전형적인 잡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잡초의 성질을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조경을 연출할 수 있다.



군락의 형태도 줄을 뿐만 아니라 독립의 형태로도 매우 좋다. 다만, 독립적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주변에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 수크령의 절정기는 워니 해도 이삭을 피우고 난 때이지만 독립의 큰 포기로 키울 경우에는 꽃이 피지 않아야 좋은 관엽의 가치를 가지는 식물이다. 번식은 포기나누기와 분주법이 있으나 종자번식의 경우 단명종자이므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좋고 각 지역별, 포기별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주 아름답고 우수한 개체가 있으면 포기나누기



로 번식하면 좋은 우량의 식물소재를 구할 수 있다. 약간 건조한 땅을 좋아하므로 습지에는 좋지 않다. 따라서 하천부지에 적용할 경우 약간 건조기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즘에는 다양한 품종의 수크령이 선보이고 있는데 키가 작은 왜성 수크령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왜성수크령은 일반 수크령보다 1달정도 빠르게 7-8월경에 아름다운 이삭을 피운다. 올 가을 화본과의 멋진 야생미를 느껴보길 바라며 그 중에서도 수크령의 당당함이 최고임을 느껴보시길...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섬백리향

우리나라에는 좋은 향기식물이 매우 많고 이들은 대부분 약재 혹은 식용하거나 밀원용으로 이용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섬백리향은 한국을 대표하는 향기식물이다. 섬백리향의 자생지는 우리의 울릉도가 그 고향이다. 울릉군 나라동에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많은 조경용 혹은 분화용으로 재배가 되면서 자생지의 훼손이 없으나 약 30여년 전만해도 자생지 훼손이 심각했던 식물이며 한국의 야생화를 소개하는 많은 언론이나 화보집의 전문주인공이었다. 이름에서부터 풍기는 스타의 기질과 전세계 중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특산식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 향과 잎, 꽃의 아름다움이 가히 최고이다.



육한 토양에서 재배 하는 것이 좋다.

번식은 종자파종이나 포기나누기 혹은 삽목으로 하는데 이중 가장 간편하고 쉽고 빠른 것이 삽목이다. 삽목은 어느 때나 잘되는데 처음 자라는 녹색줄기가 약간 경화되는 줄기를 4-5마디를 기준으로 잘라 마사양토 혹은 피트모스 등에 꽃아 관리하면 약 2-3주만 되면 뿌리를 내린다. 다만 삽목상의 물이 많으면 줄기가 썩게 되므로 주의한다.

만약 조경에 이용할 경우는 락가든이나 혹은 양지의 사람들이 잘 다니거나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심으면 그 향과 잎 그리고 꽃이 필 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특히 돌 틈 등에 심으면 돌과 상록의 잎이 어우러지며 표현하는 경관은 매우 아름답다. 줄기가 너무 자라 잘라줄 경우가 생기면 너무 강하게 자르면 새 싹을 내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강하게 자르지 말아야 한다. 또 배수가 불량하거나 너무 음지의 경우는 생육이 되지 않고 여름철 녹아버리므로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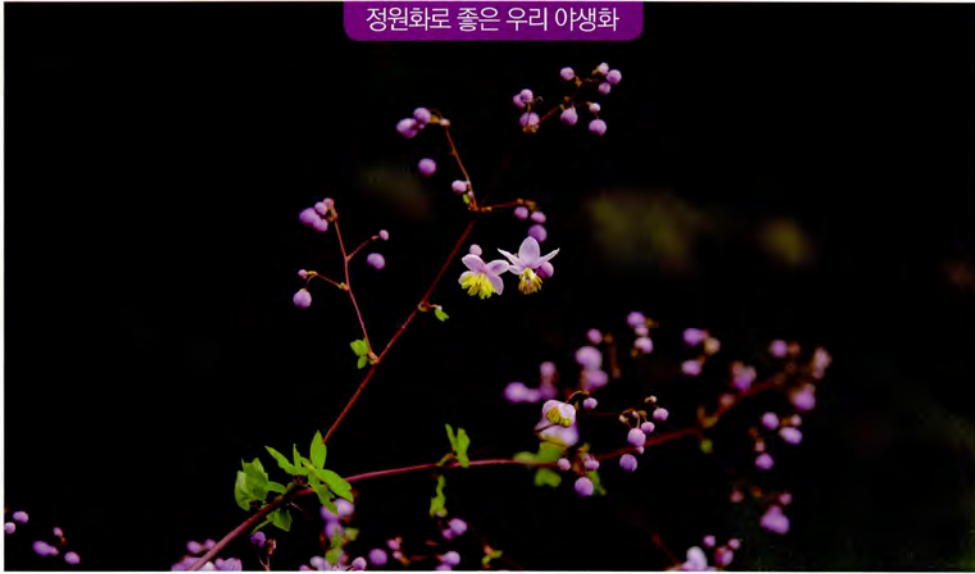
섬백리향은 꿀풀과의 관목으로 바위틈이나 건조양지에서 누워 자라며 보통 절벽 같은 곳에서 늘어지며 자란다. 계란모양의 새끼손톱 같은 작은 잎이 마주나고 약간 두껍고 광택이 난다. 마디는 조밀하여 매우 아름다운 포기를 이루고 겨울에도 상록으로 무름을 자랑한다. 어린 순은 흡사 조밥을 닮았지만 해를 묵을수록 큰 줄기는 목질화 되고 두꺼워져 나무와 같이 된다.

일반적으로 허브식물 중 타임이라는 종류가 백리향을 일컫는데 섬백리향은 일반 백리향보다 향이 진하고 잎과 꽃줄기 등이 두껍고 광택이 나므로 오히려 관상 가치가 더 뛰어나다.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타임보다도 더 상품성이 높고 또 기르기도 쉽다.

자생지가 울릉도의 섬 양지 절벽 등에서 생육하므로 재배할 때나 혹은 취미로 기를 때는 이런 자생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매우 기르기 쉬운 식물이다.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너무 많은 퇴비는 줄기의 마디를 너무 길게 하고 빨리 자라게 하여 관상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고품비료를 이용하거나 추비위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대량생산을 하여 향을 추출하거나 약용, 혹은 차로 개발하기 위함이라면 적당히 비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야생화



분홍색 꽃 화사한 - 금평의다리

금평의다리라고 하면 흔히 금색을 따는 원가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정작 금평의다리에서 금색은 잘 보이지 않고 분홍색이 먼저 보인다. 분홍평의다리라고 불러야 맞지 않나 싶다. 사실 우리 눈에 분홍색 꽃임으로 보이는 건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이다. 유사종들의 꽃받침은 일찍 떨어지는 편이지만 금평의다리의 꽃받침은 비교적 오래 붙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평의다리 종류 중에서 화사하고 예쁘기로 따지자면 금평의다리가 단연 최고다.

금평의다리는 수술이 금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확히 하자면 수술의 색깔이 금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지만 이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사실 평의다리라는 이름도 평이나 평의 다리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 혹자는 줄기가 평의 다리처럼 길쭉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평이 백로나 학도 아니고, 다리가 그렇게 가늘고 길다면 산이나 들에서 숨어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평과 연결 지어 풀이하는 건 억지스런 해석에 불과하다. 평은 우리와 친숙한 동물이기에 친숙한 식물의 이름에 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금평의다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평의다리 종류 중에서 가장 크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비옥한 토양에서는 더욱 잘 자라다 보니 그런 것들은 어지간한 농수산수보다 크다. 그렇게 큰 키의 식물이 지름 1cm의 분홍색 꽃을 조롱조롱 매달아 아래를 향해 피우면 참 예쁘다.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지는 꽃보다 더 큰 별들이 찾아와 힘겹게 매달리는 모습이 재밌다.

금평의다리는 습기 있는 산과 들에서 잘 자라는 야생화다. 야생에서 만나는 것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대관령휴게소로 가는 길가의 습지라든가 홍천의 습한 계곡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정원에 무리 지어 심어놓으면 한여름의 화단을 풍성하게 장식해준다. 경

금평의다리(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개화: 7~9월 높이: 1~2.4m

중부 이북의 습기 있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 줄기: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며 자줏빛을 띠고 전체에 털이 없다.

▶ 잎: 어긋나게 달리고 3~4회 3출엽이거나 2회 깃꼴겹잎이다. 작은잎은 난형이고 끝이 2~3갈래로 얇게 갈라진다. 뒷면은 분백색이 돈다. 턱잎은 난형이고 줄기를 감싼다.

▶ 꽃: 7~9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달리는 원추꽃차례에 홍자색 또는 분홍색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잎은 4~5개이고 꽃잎처럼 보이며 타원형이고 일찍 떨어진다. 알려저 있으나 다른 종류에 비해서는 오래도록 달려 있는 편이다. 꽃잎은 없다. 수술은 많고 노란색이다. 암술은 8~20개이다. 암술대는 가늘고 길게 자라며 암술자루는 매우 짧다.

▶ 열매: 좁은 도란형의 수과이고 날개 같은 능선이 있으며 짧은 자루가 있다.



금평의다리의 금색 수술

기도 용인시의 한택식물원 같은 곳에서는 수생식물원으로 가는 길목에 금평의다리를 많이 심어놓았다. 관람객의 눈높이로 서서 자잘한 보라색 꽃을 피워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유사종 알아보기

평의다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유사종은 아주 많다.

일단 은평의다리(*Thalictrum actaeifolium* var. *brevistylum*)는 보라색 꽃이 피는 것이 언뜻 금평의다리와 비슷하지만 키가 작은 편이다. 참평의다리라고 부르는 것도 은평의다리와 같은 것으로 보며 선취권을 존중하여 모두 은평의다리라고 부른다.



은평의다리



자주평의다리



키가 큰 금평의다리

은평의다리와 비슷하고 연한 보라색 꽃이 피는 것으로 자주평의다리(*Thalictrum uchiyamae*)가 있다. 자주평의다리는 은평의다리에 비해 전체적으로 작고 꽃차례가 엉성한 편이 다르다. 대개 높은 산의 바위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주평의다리를 화단 바위틈에 심기도 한다.

연꽃의 잎처럼 잎자루가 잎 뒷면에 붙은 것은 연잎평의다리(*Thalictrum coreanum*)라고 한다. 대개 높은 산에서 자라는 편이며 길고 굽직한 방추형의 부리를 가진 점이 특징이다. 그에 비해 꼭지연잎평의다리(*Thalictrum ichangense*)는 연잎평의다리에 비해 열매자루가 약간 길고 수염부리 끝에 공알 모양의 덩이줄기가 달리는 점이 특징이다. 전에는 연잎평의다리와 꼭지연잎평의다리를 구분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하는 편이다. 산평의다리(*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는 흰색 꽃이 풍성하게 피고 열매자루가 짧은 점이 특징이다. 꽃평의다리(*Thalictrum petaloideum*)는 암술이 연한 노란색 또는 녹색이며 열매자루가 거의 없는 점이 특징이다. 비교적 드문 편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좁평의다리(*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다. 꽃이 황백색으로 피고 열매자루가 거의 없어서 금세 식별할 수 있다.

평의다리(*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는 키가 비교적 큰 편이다. 수술대가 매우 길고 열매자루 또한 길며 열매에 3~4개의 날개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남한에서 드물게 자라는 편이고 북부지방에 많다. 특히 백두산 주변의 왕지로 가는 길에 새하얀 군락을 이룰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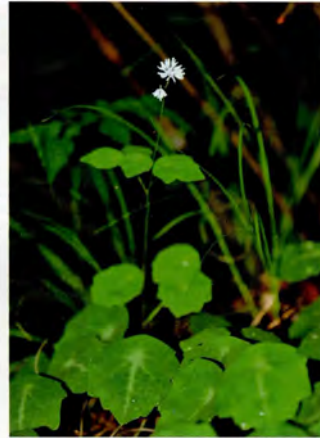
연잎평의다리



연잎평의다리의 암술과 수술



꼭지연잎평의다리의 옆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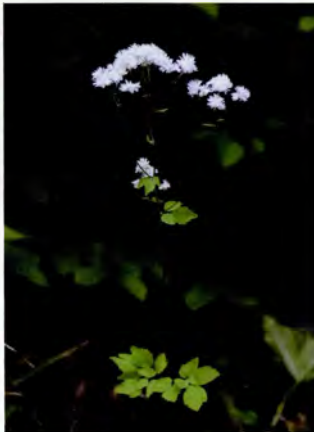
꼭지연잎평의다리



산평의다리의 꽃



꽃평의다리의 꽃



산평의다리



꽃평의다리

심기와 관리하기

- 금평의다리는 별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지만 반 그늘진 곳도 괜찮다.
- 너무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초기에 웃자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척박한 땅에 심는 것을 권하는 편이다.
- 건조에는 약하고 습기에는 강하다.
- 물은 보통으로 관수 관리한다.
- 시비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바로 뿌리는 것이 좋다. 반 그늘진 곳에서 발아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뿌리가 워낙 큰 편이라 포기나누기는 어려운 편이다.

글 사진 이동혁
 혁이삼촌의 풀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우리씨드 완성품! 전시용, 행사용, 효과만점의 빅사이즈 화분 화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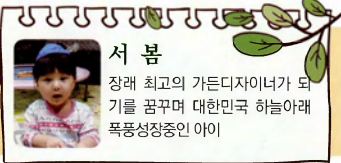
백라미, 모델하우스, 지엽죽제 등
 행사용으로 안정감있고
 식재후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 ◆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고급정원, 도로가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에키나



에키나는 몇 년전부터 국내 조경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정원식물입니다. 에키나는 국화모양의 대형의 꽃을 피우며 매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재이고요, 이제는 화색이 다양하고 키도 작은 다양한 품종이 계속 소개되어서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유망한 정원소재입니다.



에키나와 함께 खेल-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6월말경 개화가 시작하여 꽃이 1차 시들기 시작하면 꽃을 제거하여 2차, 3차 개화를 유도하면 장기간 개화하기도 합니다. 꽃이 크고 매우 화려할 뿐만 아니라 꽃이 저도 술방울같은 이삭이 관상가치가 있어 절화용으로도 안정맞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육이 강건해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모두 잘 자라고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에서의 재배는 매우 좋은 꽃을 볼 수 있고요, 고급정원, 골프장, 도로가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혼합



저와 잘 어울리나!

식재시에는 키가 큰 품종(70~90cm)은 뒷줄식물로 이용하면 좋고 키가 작은 품종(50~60cm)은 중간식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합식재시에도 적용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등에 군락으로 대면적 식재해도 좋으며 특히 그라스류와 대면적으로 혼성식재하면 더욱 새로운 느낌의 경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파니쿰, 무늬새, 몰리나 등 꽃잎이 자라는 그라스류와 조화롭게 혼성식재하면 한층 고급스럽고 산뜻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유럽정원에서 에키나와 그라스와의 혼성식재 아름다운 경관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색이 너무 고급스럽네요.

에키나의 화색은 분홍색, 하양색, 노랑색을 기본으로 근래에는 다양한 색상의 새로운 품종들이 선보이고 있어 그 선택의 폭이 더욱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에키나 종류 알아보기



하비스트문



햇샘머



에키나



에키나 신라이즈



에키나 노랑



에키나 레인보우



에키나 선셋



에키나스노우

세계의 정원박람회

프랑스 쇼몽 국제정원

글사진 편집실



쇼몽 국제정원 페스티벌은 1992년 시작되었다. 벨기에 조경사 Jacques Wirtz가 기본계획을 맡았다. 쇼몽성에 딸려있던 3.5ha규모의 농장 부지를 각각 250㎡씩 30개의 소공간으로 구획해 놓았는데, 각각의 정원 부지는 종 모양 혹은 튕립 모양을 띠고 있다.



페스티벌의 원년인 1992년을 제외하고 1993년 이래 가든 페스티벌은 국제 공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전시회의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 정원들은 우리의 실상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식물의 재배와 응용기술들을 충분히 나타냄으로써 실현 가능한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 주제는 해마다 바뀌는데 예를 들면, 과거 1996년의 경우 '기술은 시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까', 1999년에는 '여기에는 야채밖에 없네.' 등 재미있는 주제가 선택되었었다. 최근, 2009년에는 '색의 정원', 2010년에는 '몸과 영혼의 정원', 그리고 2011년에는 '미래의 정원



과 종 다양성'으로 생태조경관련 정원으로 주제가 선정되었다. 초기에는 개최기간이 6월부터 10월 중순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4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개최되고 있다.

독일 정원박람회가 매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과 달리 쇼몽과 영국의 첼시프라이쇼는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하지만 쇼몽과 첼시는 개최기간에서 같긴다. 첼시는 단 5일간만 개최되는데 비해, 쇼몽은 독일 정원박람회처럼 약 6개월 동안 열린다.

때문에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맛볼 수 있고, 대부분의 정원이 해마다 새로 조성되지만 몇몇 정원은 몇 년간 존치되기도 한다. 첼시가 정원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이른 한 순간에 집중한다면, 쇼몽은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든 페스티벌이 열리는 쇼몽성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멋진 고성이 어우러져 있는 루아르 강변에 위치해 있다.

미래의 새로운 정원 모델과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예견된 유행을 선도하여, 조경과 정원에 관심을 가진 전문인은 물론, 이러한 유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년 다양한 흥미거리와 관심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쇼몽 가든 페스티벌에서 엿볼 수 있는 정원들은 단순한 박람회의 성격을 뛰어넘어 정원 디자인을 통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며, 흥미로운 유희의 차원을 초월하여 정원의 역할이 시간적인 문화의 하나로서 지적인 영역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많은 정원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실험적 구상을 위하여 이곳에서 소개되는 정원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원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실험적 캔버스와 같은 장소에서 좀 더 색다른 창조

물들이 선보여지기를 기대한다.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속초에서
온 편지



여름 텃밭은 키를 키워 녹음이 우거진다. 공 덩굴은 지나치게 우거지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하다.

글 사진 오 경 아

8월 August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오 경 아

<http://blog.naver.com/oka0513>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영국 정원 산책 저자

작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오경아는 정원을 문화로 보는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과 접목된 생활 속의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소나기 사이로 보이는 햇살

불같은 정열을 지닌 우리 민족의 힘은 날씨에서 오는 것이 아니려나! 붉은 티셔츠를 입고 사청 앞 광장에 수만의 군중이 응집한 일을 두고 유럽에서는 지금도 화제다. 어떻게 전국민을 이토록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놀라움이다. 그 런가하면 내한공연을 온 해외 가수들은 콘서트 장에 울려 퍼지는 관객들의 떼창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런데 우리의 날씨도 어쩔 그리 덥아 있는지. 한 번 내리면 쉼 없이 48시간을 내리고, 쏟아 붓고, 그러다 맑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땡볕이다. 비발디의 사계를 들어봐도 여름이 가장 격정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은 그 중 압권이다. 물론 당연히 이 와중에 정원도 가장 격정적이고 힘이 든다. 사람이 맞아도 아플 것 같은 빗줄기가 연약한 초본식물을 이틀 넘게 두들겨 대면 피어난 꽃은 녹아 버리고 잎도 드러누워 물러진다. 그러다 반짝 햇살이 나면 아직 가시지 않은 습기에 열기가 보태져 흡사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돼 버린다. 식물들의 격여야 하는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힘들지만 이 안에서 살아남게 되는 식물들은 키를 더 키우고 몸집이 전에 없이 단단해진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모든 것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만큼의 단련과 이겨냄의 흔적이 있다. 세상은 참 견딘 만큼만 아름다워진다!

잠자리와 나비의 정원

나비와 잠자리는 날개가 달린 대표적인 곤충이다. 그런데 나비와 잠자리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나비의 경우 총 4개로 구별되는 변태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는 알에서 부화하고, 벌레가 되었다가, 번데기로 그리고 드디어 날개를 단 성충이 된



다. 그런데 이 전 과정이 4주, 약 한 달 만에 완료된다. 그래서 보통 한 마리의 나비가 1년 동안 4번 정도의 알을 낳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다.

반면 잠자리는 나비에 비해서 애벌레가 유충으로 무려 4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 변태의 과정도 달라서 알에서 유충, 그리고 번데기 없이 바로 열 번 정도 피부를 벗겨내면서 잠자리가 된다. 잠자리와 나비 모두 성충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몇 달 정도의 삶을 살고 나면 알을 낳고 생을 마친다.

늦여름 정원에선 잠자리와 나비가 정신없이 맴을 돈다. 그들의 짧은 삶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날개 짓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된다. 늦여름의 정원은 이제 절정이다. 8월 7일 가을을 알리는 인추가 들어오고, 더위가 물러가는 처서가 23일이다. 이렇게 더위가 서서히 아침저녁으로 뒷걸음을 치는 동안 가을이 문턱을 넘어온다. 모든 절정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지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젊음을 잃고 나서야 그 시절을 다시 알게 되듯이... 그래서 뜨겁고 지치는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계절의 절정이 지나고 있음을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키를 키운 잡초들

꽃밭을 어지럽히던 잡초는 여름이 되면 이제 기둥을 굵게 세워 나무만큼이나 거세진다. 힘껏 뽑으려다 보면 줄기만 뜯은 채 엉덩방아를 찧기도 일쑤다. 이럴 땐 뿌리 채 제거하느라 공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뿌리는 놔둔 채 잎과 줄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잡초는 1년생과 해를 거듭해 나오는 다년생이 있다. 1년생의 경우는 일단 잎 부분을 제거하면 뿌리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가을이 되면 자절로 소멸된다.



여름은 정원의 절정이다. 화단 가득 꽃을 피운 화단은 아름다움의 정점을 찍는다.

키워 키워 주황꽃으로 여름 정원을 장식하는 칸주리



다년생의 경우는 다시 뿌리에서 싹을 틔우겠지만 이 역시 시간이 걸리고 곧 가을이나 당연히 세력은 약해진다. 8월을 기점으로 봄에 싹을 틔운 식물도 이제 서서히 기운을 잃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8월의 시간을 '색이 사라져버린 둔탁한 달'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정원엔 어느 새 국화가 준비 중이다. 여름과 함께 사라져버릴 정원의 절정을 국화가 다시 한 번 불을 지펴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국화 화단을 잘 관리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자.



정원을 찾아오는 작은 아생동물은 정원의 또다른 즐거움이다.

정원속의 식용 꽃(Edible Flower)

우리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그 식물들 중에는 꽃, 잎, 뿌리 등을 먹을 수가 있는 종류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그대로 날 것으로 먹든지, 말려서 차로 마시든지 식물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특히 아름다운 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식용할 수 있는 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들을 재배하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다양한 식용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Monarda 'Scorpion'

모나다 (Monarda didyma)

모나다는 북미 동부지역이 원산지인 잘 자라는 식물이다. 초기 미국 원주민들, 그리고 후에 정착민들이 차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 모나다는 털이 있는 꽃들이 여름에 걸쳐 무성하게 잘 자란다. 모든 품종들 중에서 빨간색 재배종이 가장 맛이 좋다. 빨간색 재배종으로는 Cambridge Scarlet(캠브리지 스칼렛), Adam(아담), Firecracker(파이어 크래커)가 있다. 일년생 모나다 품종인 Lamabata(라마바타)는 라벤더 색깔의 꽃과 맛이 강한 잎을 가지고 있다. 꽃과 잎들은 향이 있는 음식인 샐러드나 크림 스프, 고명으로 조금씩 뿌려 쓸 수 있다. 모나다는 내한성이 강하고 키우기 쉬운 다년생 식물이며 70~80cm정도까지 자란다. 식물을 식재할 때 양지나 부분 음지지역에 하는 것이 좋고 유기질이 풍부한 축축한 토양을 좋아한다. 간혹 흰가루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바로 방제해주면 된다. 그리고 꽃의 수확은 여름에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하기 시작하면 된다. 모나다에서 빨간 품종의 꽃들은 상당히 강하고 향이 있고 박하 맛이 난다. 꽃들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허브 차를 만들 때 함께 사용된다. 꽃잎을 차나 샐러드에 넣어도 된다. 혹은 꽃잎을 도미나 다른 부드러운 생선요리 위에 뿌릴 수 있다. 그리고 꽃잎과 함께 살구, 복숭아, 자두를 곁들여 음식에 넣어도 괜찮다. 차가운 음료에 고명으로 넣기도 한다. 혹은 사과 젤리나 파운드케이크와 같이 구운 음식에도 첨가할 수 있다.



Monarda 'Garden view Scarlet'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2016 원데이
허브힐링캠프(생활의향기)

국내 최초 개동숙에서 아로마테라피 물질추출

글 하진 윤정식 -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생활의 향기 대표
www.aromatherapy.or.kr/ www.aromalife.com aromalife@naver.com

국내 최초로 개동숙에서 아로마테라피(향기치유)에 사용되는 개동숙
오일과 개동숙워터가 추출됐다.



햇개나무에서 오일추출하는 장면-설명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와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허브향기치
유연구회는 지난 6월 25일(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허브체



허브 효능 설명



햇개나무 열매 추출

험센터 '생활의향기'에서 2016 원데이 허브힐링 캠프를 열었다. 필
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동숙에서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에
센셜오일과 개동숙 플로럴워터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며 유럽의
아로마테라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한약재(허브)에서 오일과 워터
를 추출함으로써 한방 아로마테라피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향기치유 허브힐링캠프에서는 또
한, 전남 광양에서 재배한 잉글리쉬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꽃에서 라벤더오일과 라벤더워터를 직접 추출해서 회원들과 학생들
에게 제공하였다.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거제도, 여수,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서울, 경기도 등)에서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원
들과 원광디지털대학교 허브향기치유연구회 회원들 100여명이 참
석하여 허브 식물과 사람, HERB로 풀어보는 나의 인생, 그리고 에
센셜오일 추출과 다양한 허브체험, 내 인생의 Miracle 등에 대해 허
브 향기를 맡으며 즐겁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필자는 개동숙에 이어 우리나라 허브인 감귤, 당귀, 독활, 전
나무, 유자 등에서 직접 에센셜오일과 플로럴워터를 추출해 연세대
학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일정>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장〉

오전 10:00 ~12:00

허브 식물과 사람, 그리고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 허브 식물에 대한 이해,
기능성 허브비누 체험(아토피, 모공수축, 피부재생)

오전 12:00 ~ 1:30

허브와 함께하는 웰빙 허브런치(허브 불고기쌈밥: 허브를 이용한 먹거리-
한련화, 고수, 박하 등)

오후 1:30 ~ 3:00

허브오일추출(라벤더, 헛개나무) 및 국내외에서 추출한 허브오일 소개
(이성명 교수-연세대학교)

오후 3:00-6:00

향기요법 및 허브체험

- 1) 아로마테라피 블렌딩 소개(비만, 아토피, 근육통증, 변변 등)
- 2) 여성을 위한 매직 향수만들기 (여성 호르몬조절, 갱년기, 생리불순, 여성 청결제로 사용)
- 3) 허브 모기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 4) 천연 에센스만들기
- 5) 내 인생의 기억

위 내용은 뉴시스와 네이버뉴스에 "국내 최초 개동숙에서 아로마테라피 물질추출"이라는 기사로 소개되었다.



라벤더 꽃(전남 광양에서 재배)



햇개나무 열매



허브비누 만들기



천연에센스 만든 후 사진



허브차량-여성들을 위한 매직향수



천연 모기 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허브힐링캠프에서 직접 만든 작품들-허브비누, 향수, 모기퇴치스프레이, 에센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정원의 재발견 곤지암 가든플레이리아

이용란 가드너

누구나 정원의 시작으로 꿈을 이어가지만 한번 시작한 정원의 구도를 전체적으로 바꾸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의 규모가 커짐은 물론이고, 공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곤지암의 이용란 가드너는 건물의 신축을 추진하다가 정원의 울타리를 정비한다는 작은 시작이 정원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식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과정의 고단함은 있었지만 지금의 정원의 아름다움에 젖어 사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한다.

기존의 정원은 경계석이 없이 조성된 자연친화적인 100여평의 정원에 군식으로 무리를 지어 식재를 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므로 인해 고사하는 것들과 우열의 식물군이 생기면서 주인공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정원은 변화했다. 그리고 귀한 것이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식물을 이리 저리 식재하다 보니 두서 없는 정원이 늘 주인공만 알 수 있는 정원이라 남들에게도 소소한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령이 오래된 울타리 쪽 큰 과실수들을 옮겨 심으려고 하니, 전체적으로 구도를 다시 잡아야 하는 큰 일이 생기게 되었다. 또 큰 나무를 옮기면서 작은 초화류들이 다칠 수 있어서 먼저 포트에 옮기고 나무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결국은 전체적인 설계부터 다시 계획하고, 시장조사를 거쳐 집에 맞는 정원 디



자인을 계획하여 설계, 직접 시공까지 하는 큰 공사를 부부가 4달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의 식물들을 다 파서 땅을 고른 뒤 식재하기 쉬운 화단의 형식을 선택했다. 화단의 경계석은 블록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히 끼어 맞추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이후에도 다시 디자인을 고치더라도 다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해 사용했다. 주 정원은 사각형을 위주로 한 정형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원스럽게 십자 동선을 만들고, 단순함에 재미를 주기 위해 가운데 부분에 마운딩을 해서 계단을 만들고, 대칭으로 연못을 만들고 그 사이에 심플한 다리를 놓았다. 연못의 수심도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여러 수생식물군이 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정원을 가꾸어 온 노후자가 보인다. 주 정원에는 장미, 글라디올러스, 붓꽃, 비단동자, 란타나, 나리류, 부용, 질레, 인동, 조팝류, 노루귀, 리아트리스, 니포비아, 송엽국, 달맞이꽃, 호스타류, 으아리, 수련, 연, 물옥잠, 수국 등 꽃이 아름다운 식물들을 위주로 식재 했으며, 좀작살나무와 피라칸사스, 주목 등은 내린 겨울정원을 색감 식재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다. 주 정원의 옆으로는 길을 지나 측정으로 이어지는데, 측정은 기존의 없는 정원을 새로이 연장해 만들었다. 정형적인 주정원과는 반대로 비정형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측정은 화단의 경계석의 선이 자유곡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화단으로 이루어지



변경 전



게 배치했으며, 화단 안으로 동선을 잡아 판석을 깔고, 좀더 가까이 식물을 느낄 수 있는 정원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식재도 과실수 위주로 다양한 꽃과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소나무와 동양적인 소품들, 석등, 돌 장승, 돌 수반, 향아리, 바위 등이 곳곳에 적절히 놓여져 있어서 거부좌를 들고 명상에 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측정의 식재는 소나무와 과실수가 주가 되고 해바라기, 백일홍, 은썩, 갯쟁이풀, 톱풀, 마가렛, 노루오줌, 무늬붓꽃, 꽃생강, 아스타, 접시꽃 등 키 큰 식물과 키가 작은 종류의 식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대비적으로 사용해 식물이 풍성하게 보이는 효과를 냈다.

이 정원의 특징은 기존의 식물을 80%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원을 조



성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원에서는 밀식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개체들을 적당히 분주시키면서 군식시켜 그들만의 영역으로 인해 정원이 더 풍성해 보인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다. 정원의 새로운 조성으로 인해 300여종의 식물군을 조사할 수 있어서 주인장만의 도감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도 배움이 많았는데, 식재 시기만 지키면 잘 자라는 것인줄 알았는데, 직접 이식을 해 보니 꽃이 피는 시기는 피하고, 어린 것을 옮기는 것이 훨씬 생명력이 강해 땅에 활착이 잘 되었다. 연못의 연꽃도 물이 마르지 않게 채워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을 옮겨줄 때는 서서히 수위를 높여 적응시켜 줘야 한다는 것을 백연을 읽고서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정원이 새 옷을 입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관리를 비료를 주어야 할 곳과 주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 식물의 자리를 잡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하고, 물살을 알아 썩도 티우지 못한 종류를 구분해 땅에 이름표를 박아주고, 나무들도 분을 따서 옮겼지만 화단이라는 특성상 기존의 땅속이 아닌 만들어진 토심에 식재되어진 것이라 지지대를 세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원을 새로이 하는데 수반하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주인장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큰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 지인은 운반비만 받고 소나무를 몇 그루를 선택 이식해 주었으며, 앞집 어르신은 평소 과실수를 좋아하는 주인장을 위해 몇 그루의 품종이 귀한 과실수를 내려 주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종들을 나눔 해 주는 주위 분들의 덕분으로 식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건물 신축 시 쓰다가 남은 대리석을 잘게 커팅하여 화단 사이의 통로를 직접 마감하여 이 또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파고라와 그네, 바닥 데크, 가든 게이트는 색을 칠하거나 아크릴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넣어 새롭게 단장했고, 기존의 조형물들을 재배치하거나, 건축 후 남은 철재로 구조물을 용접해 만들어 조형물 구입비는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위의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이번 달에 새로이 꾸민 정원에서 모든 이들을 모시고 가든 파티를 계획 중이라 한다.



“정원에 관심을 갖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지향이 바뀌면서 정원이 없이는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내가 되었습니다.
정원이 있으므로 많은 좋은 이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들과의 만남의
유지가 되고,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나에게 모든 삶의 가치에
의미가 부여되는 삶의 동반자이자
영원한 꿈이며 행복함입니다”

힐링원에

글 사진 김혜숙(신안산대학교 가든스쿨 교수 / 실내원에 및 힐링원에 저자)

식물을 가르는 일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더운 여름에는 시각적인 시원함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지요.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간에서는 흙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바쁜 현대인에게 있어서 때마다 분갈이 등을 신경 써 주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힐링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어 버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과 부담감을 덜고 싶은 분들에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를 수 있는 공기식물을 추천해 봅니다.

Chapter 7.

공기식물을 이용한 공간 꾸미기

공중식물이란

공중식물(Air Plant)이란, 흙 없이 공중에 살거나 나무에 착생 또는 바위, 벽면, 전기줄에 휘감아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공기 중의 수분과 먼지 속 미립자를 영양분으로 하여 햇빛, 물, 공기만으로 살아가며 꽃이 아름다운 착생식물이다. 생육은 잎을 통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뿌리는 지지역할만 하여 다른 식물체에 감거나 착생한다. 아간에도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기 정화식물이다.

대표적인 공중식물인 틸란드시아(tillandsia)는 아나나스과로 남아프리카의 열대-아열대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착생식물이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아르겐티아(argentea), 준세아(junceae), 이오난사(ionantha), 유스네오이데스(usneoides) 등이 있다. 꽃의 색상은 다양하며 향기가 나는 것도 있다.



유리용기속에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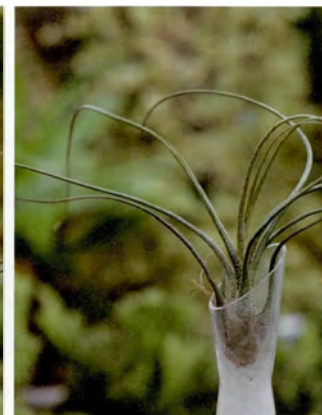
매달기



고정하기



멜라노그리테르



분지



세로그라피카



스트릭타그린클림프



아르겐티아



이오난사 스키포사

공중식물의 장식법

- ① 매달기: 낚시줄을 이용하여 공중에 매달아 모빌 같은 느낌으로 입체감을 준다.
- ② 고정하기: 고목, 나무토막, 돌, 조개껍데기 등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인다.
- ③ 유리 용기 속에 넣기: 투명한 유리 용기 속에 넣어 재배한다.

공중식물의 종류

틸란드시아 유스네오이데스 *Tillandsia usneoides* (시중명: 수염 틸란드시아 / 보통명: Spanish moss) 가장 보편적인 공중식물로 아나나스류 중 특이한 형태를 가진 기생종으로 뿌리는 없고 매우 가는 줄기



이오난사



틸란드시아 유스네오이데스



예 3~6cm의 가는 잎이 많다. 포기 전체가 은백색의 인편으로 덮여 있고, 그 인편으로 공기 중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생활하는 기생식물이다. 꽃은 매우 작은 황록색이며 관상 가치가 없다.

공중식물의 관리

- ① 물주기: 열대 ~ 아열대지방에서는 공기 중의 습도만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온대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 물주는 횟수가 달라진다. 봄~가을에는 일주일에 2회, 겨울에는 일주일에 1회가 알맞다. 물을 줄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충분히 젖도록 흠뻑 준다. 아침에 물을 주고 해가 지기 전에 건조시키는 것이 좋은데, 물을 준 후 충분히 말리지 않으면 잎이 검게 변한다. 이 때, 상한 잎은 떼어낸 후 바삭 말린다. 물은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주는 것이 좋다. 빗물 속에는 먼지나 유기물 등이 양분으로 함유되어 있다. 수온은 20℃가 적당하다. 식물체가 마른 상태에서는 색상이 선명하지 않으며 탈수현상이 나타난다. 잎이 심하게 말랐을 경우에는 한나절 또는 5시간 정도 물 속에 잠기도록 담가주면 서서히 회복된다.
- ② 온도: 적당한 생육온도는 15~30℃이며, 주야간의 온도차이는 5℃가 좋다. 특히 겨울철 야간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햇빛: 반그늘이 적당하다.
- ④ 통풍: 통풍이 안 될 때에는 썩기 쉬우므로 환기를 자주해준다.
- ⑤ 비료: 비료는 상정한 꽃을 피우거나 많은 새싹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액체비료를 2,000배 희석하여 한 달에 1~2회 준다.
- ⑥ 번식: 번식은 어미포기 밑동에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면 포기 나누기를 한다.



|가든인 칼럼|

계절별 주요 품목 가든연출

글 사진 서준혁



현재 우수한 조경용 지피식물군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군으로 백합과의 원추리군, 옥잠화군, 나리군, 알리움군 그리고 석죽과의 패랭이군, 꽃고비과의 후록스군, 붓꽃과의 아이리스군, 이질풀과의 제라니움군, 국화과의 여러 군, 그리고 화본, 사초과의 여러 그라스군, 제비꽃과의 비올라군 그리고 품종으로서 큰 군을 가진 매발톱군, 모란(목단)군, 작약군, 장미과의 여러군, 앵초군, 연꽃, 수련군, 델피니움군, 앙귀비군, 노루오줌군, 펜스테몬군, 니포피아군, 아네모네군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품종군이 있기는 하나 속근초의 대표군으로 위의 나열된 품목들이 주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메인 사진은 프랑스에 있는 아이리스의 대표적 정원인 모네정원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주요 품종군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조경용 속근초의 계절별 테마조경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모네정원의 대표적인 정원테마는 뭐니 해도 독일붓꽃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내방객이 집중된다. 하지만 모네정원의 기본적 테마는 Iris의



항상 관리자들은 다음 계절 준비에 여념이 없다.

화려함만은 아니다. 아이리스가 피는 시기에도 기타 여러 가지 식물들



계절별로 변화를 주기 위해 트레이에 재배되어 지는 일년초들

이 복합적으로 혼합, 혼성되어져 있고 계절별로 계속해서 바꾸어 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식물원 혹은 공원의 경작된 식물선택이 설계자 혹은 오너의 만족감을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식물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무조건 우리나라 야생화여야 한다느니, 반드시 다년생이어야 한다느니, 또는 오너의 관념 속에 있는 품목을 주변생태, 혹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고, 집중해야 한다느니 하는 경직된 예를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한택식물원과 같은 정통의 식물원이 아니라면 품종 수 혹은 품목 수를 늘리기 위해 너무 고집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생태공원의 경우 정통적인 식물원 (Botanical Garden : 학술조사 연구를 주로 하는 곳으로 식물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내외 식물을 수집하여 각기 알맞은 장소에 심고 관리한다. 영국의 큐 왕립식물원, 인도의 인도식물원과 같은 국립식물원이나 독일의 베를린 달렘 식물원과 같은 대학부속식물원 등이 이에 속함)이 아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가치가 더 강조되며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주기 위한 장소라고 보아야 더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네편정원을 살펴보면 상업적인 가든의 형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정원을 조성할 때는 화가인 모네의 개인 정원이었



지만 지금은 매우 상업적인 따라서 고객들을 위한 식물정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리스가 약 3주에 걸쳐 피고 나면 고객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 자연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다시 가을, 겨울 순환된다. 이 순환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합된 식물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변하고 순환하며 우리인간은 이 식물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변하고 순환하며 우리인간은 자연현상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을 즐기는 것이다. 공원이나 정원은 이 식물과 자연이 변해가는 과정을 테마로 조성해 쉽고 의도된 풍경을 즐기기 위한 곳이다. 많은 군더더기를 붙여가며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사실 한가지이다.

"우리의 조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라는 것이다. 이때 사람이란 이용객, 소비자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경관을 연출해야 한다. 제목으로 "계절별 주요 품목 가든연출"로 제시한 것은 큰 식물군을 계절별, 테마별로 선정하고 주품목과 보조 품목의 이해와 혼합, 혼성 식재의 개념을 알아야 좋은 경관으로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이리스를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게 연출시켜 주는 식물로 모네편정원의 경우 일년생인 꽃무유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련과 수선화, 튜립, 철쭉, 라일락 등 나무 꽃, 작약, 원추리, 백합, 부처꽃, 양귀비, 장미, 샬비어 등으로 주테마를 잡고 기타 일년초 및 다년초를 적절하고도 다양하게 혼합, 혼성식재를



영국의 큐가든



한다. 때문에 정원의 한편에는 관리인들이 항상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일년초 및 숙근초를 바꾸는 작업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공원이나 골프장, 그리고 정원의 꽃가꾸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정원용 식물군



노루오줌



매발톱



아이리스



육점



원추리



작약



클레마티스



매랭이



후록스

“정원문화 교육 입문은 자기여생의 행복과 힐링 시작이다”

2016 도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9개월 모집

① 과정안내

주 최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6년 8월 31일 ~ 12월 7일(매주 수요일), 총14강 / 자세한 일정 추후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교육장
수 강 료	50만원(교재 및 교육재료 포함)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30명(선착순) · 힐링정원 문화에 소양과 관심있는 분 · 자기정원 조성 및 계획 설계를 희망하시는 분 · 정원문화의 이론과 실무 습득, 자영업에 희망하시는 분 · 귀농귀촌 희망 및 준비하시는 분 누구나

② 강좌혜택

- 교육기간 중 신상품에 한해 구입가 20% DC 특혜
-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및 졸업앨범 수여
- 수강기간 중 3~5회 모범사례 정원답사 기회 제공
- 당기교육 수강생 전원 종식 제공(14강)

③ 강좌특징

-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 각 분야 국내 유일의 최우수 전문 강사진 구성으로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강의합니다.
-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 실습을 통해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립니다.

④ 커리큘럼

강의순서	강의내용	교육시간
제 1강	개강식 / 식물환경과 환경	4시간(이론2/개강식2)
제 2강	정원문화의 이해	4시간(이론2/실습2)
제 3강	정원식물의 종류와 특성	4시간(이론2/실습2)
제 4강	정원 계획과 설계	4시간(이론2/실습2)
제 5강	생태정원 조성 및 관리	4시간(이론2/실습2)
제 6강	우리꽃 아생화 그 종류와 특성	4시간(이론2/실습2)
제 7강	우수정원 답사 / 소정원 조성 작품전시	4시간(실습4)
제 8강	수목의 식재와 관수	4시간(이론2/실습2)
제 9강	실외정원 조성 기법실무	4시간(이론2/실습2)
제 10강	친환경 채소정원 조성	4시간(이론2/실습2)
제 11강	병해충관리	4시간(이론2/실습2)
제 12강	수목의 전지 전정	4시간(이론2/실습2)
제 13강	정원의 비배와 관리	4시간(이론2/실습2)
제 14강	식물번식 / 소정원 작품전시회 / 수료식	4시간(이론2/종강식2)

⑤ 교육문의

-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이메일 gardenjoa777@naver.com

우리꽃연구소 농장 정원에서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맞춤형 강의!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 상기 수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차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원문화 실무 중/급/반 정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각분야 국내 유일의 **최우수 전문 강사진 구성!!**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 **생생한 현장실습!!**
우리꽃 교육 중심 강좌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 전개!!**
기존 아카데미 수업보다 폭넓은 **실습위주의 수업!!**
실무 사업준비를 위한 **기초 다지기!!**

1. 과정안내

교육기간	총 14강 / 자세한 일정 추후공지
수 강 료	100만원(교재 및 실습비 포함)
모집인원	20명(선착순 마감, 최소 10명 이상)
지원자격	· 정원문화 실무 자격 습득 희망자 · 정원조성 사업 준비생 · 정원공사 분야 취업 희망자 · 정원 소재 생산업 희망자 · 정원문화 실무 교육 사업 준비생 · 귀농산촌 힐링여행 계획 희망자

2. 강좌혜택

- 본 아카데미 교육수료생 및 당기 교육 수강생에게는 다음과같은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 조경조성에 대한 상시자문
- 자사 조경원에 식물 및 조경자재 구입 시 10%DC(신상품 20%DC)
- 조경공사 의뢰요청 시 공사비 10%DC
- 정원문화 확산 목적에 따라 수강생 입학 추천 시 혜택
- 수강생 전원 교재 무료배부
- 수강기간 중 3~5회 모범사례 정원답사 기회 제공
-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및 졸업앨범 수여
- 당기 교육수강생 전원 종식제공(14강)
- 수료자 전원에게 본원 아카데미 회원증 배부
(평생 자사 생산자재 및 식물 구입 시 5%할인권 부여)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격인증서 부여
(본원의 실무자식 자격 인증서는 본사의 시공협력 및 협찬 특혜)

3. 교육문의

-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COLOUR IN THE GARDEN



갈색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색이다. 농부가 작물을 키우기 위해 씨를 부리는 '흙'이 갈색이고 나뭇가지나 줄기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물드는 나뭇잎속에도 갈색이 뿌려져 있다. 자연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색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고 편안함을 주는 색 중에 하나가 갈색이 아닐까. 갈색은 식물의 꽃뿐만이 아니라 잎 또는 줄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다양성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다. 너무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갈색의 꽃들(Brown Flowers) 매력을 조용히 들여다 보자.

오도

폴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보수목원 근무



레크르바타전나무
Abies recurvata var. *ernestii*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4-5월 수 3월, 11월 ▶ 4.5m



아파니스아카나
Acaena affinis
장미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1m



월케시아나아칼리파 '호프마니'
Acalypha wilkesiana 'Moorei'
대극과·속근초
▶ 연중 수 3월, 10월 ▶ 1.5-1.8m



단풍나무 '베니-츠키사'
Acer palmatum 'Benitsukasa'
단풍나무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3-6m



홍공작단풍
Acer palmatum 'Dissectum Atropurpureum'
단풍나무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1.5-2.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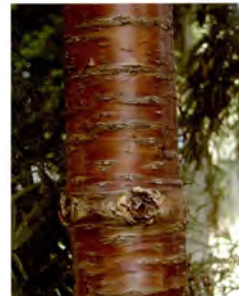
단풍나무 '카츄라'
Acer palmatum var. *Katsura*
단풍나무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2.5-4m



헤파로봄 단풍나무
Acer palmatum var. *heptalobum*
단풍나무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4-8m



공작고사리
Adiantum pedatum 'Japanicum'
고사리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4m



쿠닝하미남양삼나무
Arucaria cunninghamii
아라우카리아과·상록침엽교목
▶ 11-2월 수 3월, 10월 ▶ 60m



멘지에서탈기나무
Arbutus menziesii
진달래과·상록활엽교목
▶ 4-5월 수 3월, 10월 ▶ 10-20m



계수나무
Cercidiphyllum japonicum
계수나무과·낙엽활엽교목
▶ 4-5월 수 3월, 10월 ▶ 15-25m



말채나무
Cornus walteri
층층나무과·낙엽활엽교목
▶ 6월 수 3월, 10월 ▶ 10m



손수건나무
Davidia involucreata
층층나무과·낙엽활엽교목
▶ 5-6월 수 3월, 10월 ▶ 15-20m



종꽃 '스파이스 아일랜드'
Digitalis 'Spice Island'
현삼과·2년초
▶ 6-7월 수 3월, 10월 ▶ 0.8-1.2m



존스토니 유카리
Eucalyptus johnstonii
소귀나무과·상록활엽교목
▶ 7-8월 수 3월, 10월 ▶ 60m



마니카타거네라
Gunnera manicata
군네라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3m



아이소플렉스
Isoplexis scapulum
현삼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4m



막시마벌레잡이풀
Nepenthes maxima
벌레잡이풀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5-1m



히말라야카 벚나무
Prunus himalaica
정미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10-15m



유럽떡충 '서덜랜드 골드'
Sambucus racemosa 'Suffertland Gold'
인동과·낙엽활엽관목
▶ 5-6월 수 3월, 10월 ↓ 2.5-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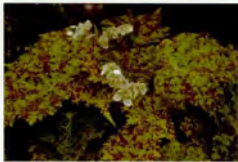
참여로
Veratrum nigrum
백합과·속근초
▶ 8월 수 3월, 10월 ↓ 1.5m



카우다툼 족도리풀
Asarum caudatum
취병솔당굴·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20m



오토포룸 개고사리
Athyrum alaphorum akanum
연마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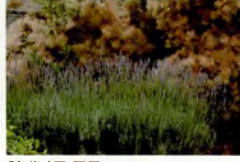
마다두케 베고니아
Begonia Marmaduke
베고니아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1-0.5m



사스레나무
Betula ermani
자작나무과·낙엽활엽교목
▶ 5월 수 3월, 10월 ↓ 10-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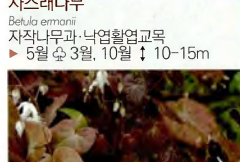
페나마리나블레크눔
Blechnum penina-marina
새끼이재비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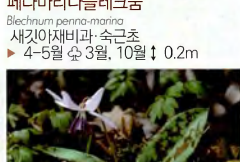
안개나무 종류
Calceolus sp.
옻나무과·낙엽활엽관목
▶ 7-8월 수 3월, 10월 ↓ 5-6m



호텐토타 크라솔라
Crassula hottentotta
돌나물과·속근초
▶ 2월(온실) 수 3월, 10월 ↓ 0.2-0.5m



트라이폴리아토비나투스 삼지구엽초
Epimedium trilobatum subsp. maritimum
매자나무·속근초
▶ 4월 수 3월, 10월 ↓ 0.5m



덴스-카니스 얼레지
Erythronium dens-canis
백합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0.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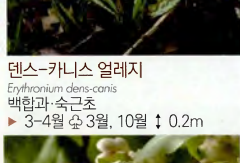
야미그달로이데스대극 '퍼퍼레이'
Euphorbia amygdaloides 'Purpurea'
대극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5-1m



돌키스대극
Euphorbia dulcis 'Chameleon'
대극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5-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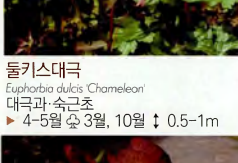
오크라케아헤베 '제임스 스티링'
Hebe ochracea 'James Stirling'
현삼과·속근초
▶ 5월 수 3월, 10월 ↓ 0.1-0.5m



스테르니헬레보루스
Helleborus x sterni
미나리아재비·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5m



히포크레피스
Hippocrepis emerus
콩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5-2.5m



붓꽃 '켄트 프라이드'
Iris Kent Pride
붓꽃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8-1.2m



수련 '레드 컵'
Nymphaea Red Cup
수련과·속근초
▶ 7월 수 3월, 10월 ↓ 0.2m



왕관고비
Osmunda regalis
고비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1m



불가니콜라 팽이밥
Oxalis vulcanicola
팽이밥과·속근초
▶ 5월 수 3월, 10월 ↓ 0.3-0.5m



프라그미페디움
Phragmipedium longilobum
난초과·속근초
▶ 11(온실)월 수 3월, 10월 ↓ 0.5m



코이주미아나 피어리스
Pteris koidzumiana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3m



벚나무 '피사디'
Prunus pissardii
정미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10-15m



미송
Pseudotsuga menziesii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4-5월 수 3월, 10월 ↓ 60-75m



만병초 종류
Rhododendron sp.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5-6월 수 3월, 10월 ↓ 1.5-2.5m



로비 까치밥
Ribes lobbia
옻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2m



도개비부채
Rodgersia podophylla
범의귀과·속근초
▶ 8월 수 3월, 10월 ↓ 1.5m



클로로페탈룸 연영초
Trillium chloropetalum
백합과·속근초
▶ 5월 수 3월, 10월 ↓ 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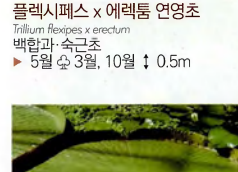
에렉툼 연영초
Trillium erectum
백합과·속근초
▶ 5월 수 3월, 10월 ↓ 0.5m



플렉시페스 x 에렉툼 연영초
Trillium flexipes x erectum
백합과·속근초
▶ 5월 수 3월, 10월 ↓ 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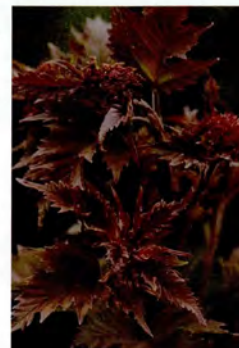
비리데 연영초
Trillium viride
백합과·속근초
▶ 5월 수 3월, 10월 ↓ 0.5m



빅토리아수련 '롱우드'
Victoria Longwood Hybrid
수련과·속근초
▶ 8월 수 3월, 10월 ↓ 0.2m



롤스토니 시노칼리칸투스
Sinocalycanthus raulstonii
반치꽃과·낙엽활엽관목
▶ 8월 수 3월, 10월 ↓ 2.5-4m



백당나무 '오노다가'
Viburnum sargentii 'Onodaga'
인동과·낙엽활엽관목
▶ 5-6월 수 3월, 10월 ↓ 3m



아이를 위한 인형의 집 정원 (바구니를 이용한 스케일 가든의 응용)



글 사진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A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Material



>> 관리법

실내 식물이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반그늘에서 관리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관수는 흙이 완전히 마르면 관수하고,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과습에 주의한다. 아이를 위한 미니정원이므로 식물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되며, 식물이 고사하거나 손상이 가더라도 개체만 뽑아서 손쉽게 교체 가능하고, 마사토와 이끼의 간단한 보완작업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다.

정원으로의 여행 16

글 사인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이너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턴트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암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정원 안의 구조물

정원에는 온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물들과 구조물들이 만들어 진다. 식물을 보고 즐기기에 있어 있는 공간, 정원을 구경하다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정원을 한층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장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등 가제보, 파빌리온, 퍼골라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의 건축물로 정자를 생각하는데 세계 어디서든 햇빛을 피하고 그늘을 만들어 휴식을 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 고대 이집트 때부터도 키오스크라는 정자형태의 구조물을 두고 정원을 즐겼는데, 정원이란 식물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두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즉 사람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정원에서 쓰이는 정자의 형태는 디자인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지는데,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퍼골라(Pergola)는 누구나 손쉽게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기둥과 선반으로만 만드는 구조물로 넝쿨성 식물을 옆에 심어 타고 올라가게 만들면 등나무 형태의 꽃 길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제보이다. 퍼골라는 걸어다니면서 즐기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가제보는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구조물이다. 목재, 철재 등 여러가지 재료를 써서 만들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정원을 꾸미는 장식적인 요소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세 번째는 파빌리온. 정원에서는 가제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데 가제보와 파빌리온의 차이점으로 사방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인지 건물처럼 막혀있는 형태인지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외국 여행을 다녀보면 멀리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햇빛을 피해 다니기 때문이다. 섀크림은 물론이거니와 넓은 행모자 섀글라스 혹은 양산까지. 정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원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어디 그늘 없냐' 부터 찾아본다. 퍼골라라고 있다면 금세 그 밑으로 들어가 있다. 우리 집 앞마당에서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구조물이 아닐까? 햇빛이 따가워 집안에서 바라보기 보다 퍼골라로 동선을 만들고 산책하기 좋은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퍼골라 모습1 장미 정원 근처에 만들어 놓아 넝쿨성 장미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퍼골라 2 식물이 백백히 올라가면 그늘을 만들어 주고 정원에서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터널처럼 만들어 동선을 유도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베나무, 사과나무 등도 인위적으로 모양을 잡아 키우며 울타리를 만들거나 퍼골라 옆 라인을 만들 때도 식재하여 사용한다



가제보 - 사방이 둘러있으며 팔각형의 모양에서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장식적인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정원의 휴식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파빌리온 - 간단한 모양,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의 모양 등 정원을 감상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혹은 정원을 한 층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장식적인 목적으로 지어지기도 한다.)

- 용어정리 -

- **퍼골라(Pergola)**: 그늘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로 정원에서는 넝쿨성 식물을 올려 꽃 길을 만들 때도 많이 쓰여진다.
- **가제보(Gazebo)**: 파빌리온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로 공원, 정원 혹은 공공의 휴식장소에 만들어지며 대부분 팔각형의 모양으로 사방이 둘러있는 모습이다.
- **파빌리온(Pavilion)**: 정자 또는 그에 속하는 경미한 정원 건축으로 다정 혹은 휴게소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야외회나 운동회 등에서 사용되는 큰 천막, 경기장의 관람석을 말하기도 하며 정원에서는 가제보 보다 좀더 큰 건물에 속한다.



다양한 정원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정원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정원식물 따라잡기 연재 ⑥

관목

낙엽성, 상록성 관목 모두 대부분 정원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높이 평가된다. 뽕나무는 모양, 향기로운 꽃들, 인상적인 열매, 매력적인 잎 등의 관상적인 특색의 다양성과 장식적인 줄기 등은 정원사들에게 끝없는 러브콜을 받는다. 교목과 마찬가지로 서식지의 범위가 넓어 어떠한 토양과 지형에도 적응가능하다.



관목이란?

교목성 식물은 하나의 큰 줄기가 있는 것에 비해 관목은 바닥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뻗어나오는 목본성 식물이다. 대부분은 1m 내외의 높이로 자라고 주요 재배용은 좀 더 작다. 그러나 라일락 같은 큰 관목들은 교목 처럼 하나의 굵은 줄기로 뻗어서 나무로 여길 수도 있다. 다 자랐을 때의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속할 수 있다.

관상적인 특징

초록, 노랑, 빨강, 보라, 은색 또는 회색의 색조를 만든다. 어떤 것들은 특히 단풍이 뛰어나다. 단풍나무는 대단히 많은 품종이 있으며 그 색이 노랑에서 오렌지를 거쳐 붉은색으로 변한다. 관목의 꽃은 그 모양과 크기, 향기 등이 매우 다양하며, 그 색은 모든 색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갈매나무속의 싸여노더스는 매우 작은 꽃들을 피워 내는 반면에 작약은 커다란 꽃들을 피운다. 많은 관목들이 일 년에 몇 주 정도만 꽃을 피우지만 하이페리쿰이나 포네티라와 같은 식물은 오랫동안 꽃을 피우기도 한다. 말채나무의 줄기는 밝은 녹색을 띠는 노란색부터 오렌지색, 붉은색 등 품종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보여준다. 이런 관목들은 겨울에 줄기를 감상하기에 좋다.

정원이용



많은 관목을 화단이나 일년생, 다년생의 혼합 화단용으로 키운다. 화단에 디자인할 때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화단이 선호종의 선택으로 장식할 것인지, 특정 계절 또는 연중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것 인지, 장식적인 모양이나 꽃 등이 있는지, 관목 화단에는 심을 때, 큰 관목들은 서로 다른 계절에 꽃피도록 종류를 다르게 선택한다. 충분한 공간이 각각의 관목에서 제공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색과 꽃의 조화, 모양과 서식지가 대조 되도록 하고 식물들 옮겨 심을 때는 가까이 있는 식물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화분에서 키우기



많은 관목들이 화분에서도 잘 자란다. 작은 정원, 테라스, 옥상테라스에 최고이다. 포인트를 주기위한 장식 화분 안에 한 종류 심거나 다양함을 위해 여러 가지 배열로 여러 개의 화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 화분 재배는 또한 특정 토양의 산성, 알칼리성이나, 배수가 나쁘거나 기후에 맞지 않아서 실외재배가 어려울 때 좋다. 연약한 식물들은 여름에는 실외에 두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실내로 옮길 수 있다.

재배

관목들은 알맞은 재배조건만 주어진다면 수 년 동안 번성한다. 정원토양 타입에 상관없이만 보통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미사질 토양을 선호한다. 땅이 얼어있다면 심는 것을 연기해야 하지만 가을 또는 봄에 심는

것이 좋다. 화분에 자라는 식물은 언제든지 심을 수 있지만 역시 가을 또는 봄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 뿌리의 넓이 2, 3배의 구멍을 파고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서 심는다. 사질토에서는 수분을 보유했 수 있도록 관목 주변을 낮춰주고, 반대로 점토질 토양에서는 관목주변을 살짝 높여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어린 나무는 뿌리가 잘 정착할 때까지 주기적인 물주기가 필요하며 새로 심은 경우,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서 잘 보호해야 한다.

비료는 이른 봄에 시비하고 멀칭은 나무 집이나 정원용퇴비로 봄 또는 가을에 두껍게 해준다.



울타리와 스크린

정원의 구획을 나누거나 울타리 등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기능을 가진 식물들은 강건하고, 밀도가 높으며 생장형태가 꽃꽂이 직립하는 것이 좋다. 장미와 같이 가시가 있고 옆에도 가시가 난 식물이나 밀도가 높게 생장하는 종류는 뚫기 힘든 울타리를 만드는데 제격이다. 왜성종들은 낮은 가장자리를 만드는데 좋다. 라벤더와 로즈마리는 향기가 있는 낮은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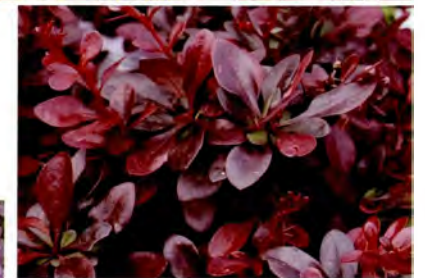
신소재 관목



무궁화 핑크쉬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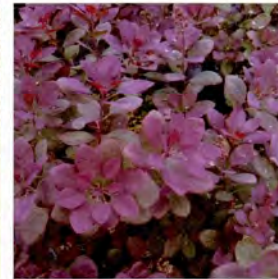
무늬병꽃



당매자나무 레드쥬얼



상귀네움까치밥나무



코티나스 로얄퍼플



개나리 미니골드



고광나무 스노우플레이크



국수나무 레드바론



당매자나무 글든링



상귀네움알채나무 미드윈터파이어

- 가든인 생생정보 -

베란다 텃밭 관리

병충해 관리

1. 베란대에 심은 채소 잎을 꼼꼼히 살펴 병충해가 생겼다면 즉각 잡아준다.
2. 천연살충제를 뿌려준다. (난황유, 마요네즈 희석액 등)
3. 통풍을 위해서 방충망이 있는 창문을 열자.

더위 관리

1. 동양베란다는 직접적으로 강한 햇빛을 받기 때문에 식물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더위를 조절할 수 있다.
2. 더위에 강한 식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더위에 약한 식물은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실내식물 건강관리

1. 식물과 화분은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점검한다.
2. 에어컨 근처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을 선택한다.
3. 식물을 심는 흙은 항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산이나 들에서 가져오지 말고, 반드시 상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자. 병충해 피해도 덜고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다.

토종약초

개풍속의 효능



항암효과

암세포만을 선별해 죽이는 아프테미신 물질이 개풍속에 함유. 기존 항암제보다 약 100배 효능을 갖고 있다. 개풍속 효소를 만들어 복용하거나 씨를 먹으면 암을 예방해 주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피부미용

비타민 A가 풍부해 윤기있고 탄력있는 피부재생에 도움이 된다. 특히 여성의 생리통에 개풍속을 이용해 좌욕을 하면 효과가 있다. 또 냉대하증과 살균효과에도 좋다.

피로회복

체력이 떨어지고 자주 피곤함을 느낄 때 피로회복 개선에도 개풍속의 효능이 나타난다.

변비 및 다이어트

섬유질이 풍부한 개풍속은 장의 연동운동을 원활히 해 배변을 도와준다.

변비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

해열작용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고온인 환자에게 개풍속을 복용시키면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개풍속을 꾸준히 복용 시 면역력이 강화되고 체력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환절기 감기예방 및 치료에도 좋다.

위장보호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용 시키면 위벽을 보호해 준다. 위염이나 위암,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말라리아 치료

말라리아나 결핵, 이질 등의 치료에도 개풍속의 효능이 나타난다. 허혈을 다스리고 가려움증, 종기, 기생충 제거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개풍속 건조



건초가 된 열매와 씨앗

개풍속 재배법

가을에 개풍속 씨앗을 뿌려 씨가 난 상태로 겨울을 나게 한다. 이듬해 자라 열매를 맺는다. 보통 노지에서 키우는 것이 좋는데 일반적인 토양이나 밭둑 하천가, 산기슭 등 불모지가 재배적이다.

파종할 때는 모래, 흙 등에 섞어 흩어부림으로 뿌리면 겨울을 난 후 이듬해 4~5월경까지 숙아서 이식을 한다. 지나치게 베게 난 모종은 숙아서 효소로 담그면 된다.

나만의 베란다 텃밭이야기

글, 그림 유민형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쫓기는 '미니멀 가드닝'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한 가드닝 가이드북

아무리 작은 공간에서도 누구든지 단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풍성한 썬채소와 과채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법부터 100% 성공하는 수확 비법, 오감을 충족시키는 매력만점의 작물 재배 노하우, DIY 가구 제작법과 재활용품을 이용한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텃밭 프로젝트 등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만을 모아 꼭꼭 눌러 담아냈다.

"오늘날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연립,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모두 2층 이상의 건물이 대부분이며 이런 주거형태의 거주자까지 합치게 된다면 우리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의 틀에서 거주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거형태가 되었습니다.

관상용 화분을 접하는 세대가 늘었으며, 관엽식물은 햇빛이 크게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하여 이제 '화분'이라 하면 관상용 나무, 난, 다육식물과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채소재배는 관상식물과 재배 개념이 다릅니다. 채소는 무력무력 키워야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해야만 채소재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파트에서 채소를 키워보면 어린 기억의 집 앞 텃밭에서 채소가 쑥 자라던 느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자라기도 하고 자라다 줄기가 약하여 부러지기도 하고, 어딘가 병이 생겨 시들어 죽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확하는 베란다 텃밭 경험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베란대를 이용하여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어렵게 키우는 채소가 아닌, 쉽고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채소를 다뤘습니다."

플라워 컴 투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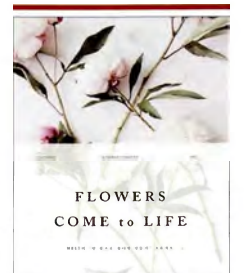
MELT의 '만 원으로 꽃다발 만들기' 프로젝트

글, 그림 김신정

삶의 기쁨을 만나는 행복한 그린 라이프스타일

간단한 꽃 손질법과 꽃시장 가는 법, 일 년 사계절 52가지 다양한 꽃다발 만드는 법,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인 저자가 알려주는 꽃다발 배색과 스타일링 팁을 담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멋진 꽃다발을 만들 수 있고, 즐겁게 선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 꽃이 있는 일상과 더불어 조금은 특별한 이국적인 여행자의 사진과 함께 행복한 그린 라이프스타일을 만나보자.

"사계절이 담긴 52개의 꽃다발 만들기 에피소드와 꽃으로 만드는 다양한 예쁜 소품, 꽃과 식물을 찾아 떠난 여행까지. 일상의 기쁨을 만나는 행복한 플라워 & 그린 라이프스타일 다이어리. '만 원으로 꽃다발 만들기' 프로젝트로 화제가 된 블로거 MELT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다! 매주 수요일 직접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고, 그래픽 디자이너의 감각을 살려 손쉽게 묶어 만든 그녀의 꽃다발은 세련된 색감과 멋진 스타일링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호응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지난 일 년 동안 만든 52가지 사계절의 화사한 꽃다발의 기록과, 특별한 날을 더 빛내줄 아름다운 플라워 소품 만드는 법, 그리고 꽃과 식물을 찾아 전 세계 곳곳으로 떠난 초록빛 여행 이야기와 포토 에세이를 담았다. 약간의 노력으로 직접 만드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용기를 준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을 만나보자."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인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타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 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 영풍문고(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처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서준혁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술개그늘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평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위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립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휘닉스파크 블루동 1층
— 허브체험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신제품 출시!!



오렌지글로브 Orange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5



핑크글로브 Pink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3



크림글로브 Cream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1



미라지 Mirag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



젠틀맨 Gentlema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7



오렌지파크 Orange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47



화이트파크 White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9



솔로몬링 Solomon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



미라볼펌킨 Miraball pumpk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



미라볼루비 Miraball ruby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2



피델리스 Fideli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41



애니파크 Anny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8



비진 Virg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40



옐로우링 Yellow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



이브닝스타 Eve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65



골든볼18 Golden ball 18
품종출원번호 10201500046



애플링 Apple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34



레몬파크 Lemon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



모닝스타 Mor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43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제품 정원식물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위 품종들은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로

2016년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꽃연구소

구입문의 : 031-634-7990